

인도에서의 영국 식민주의, 1857년 세포이 반란과 농민들

산딕 쿠마르 미쉬라 (인도 델리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머리말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는 최소한 세 단계를 거쳤다.¹⁾ 1612년에 시작된 그 첫 단계에서 동인도회사는 해안도시 수라트(Surat)에 도착하여 경제·상업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영국이 인도에 덜 정치적이고 보다 경제적으로 진출한 단계였다. 첫 단계의 후반부에서 동인도회사는 정치적 탐험을 시작하여 인도의 상당한 영토에 그 지배권을 점차 확립시켰다. 1757년 동인도회사의 플라시(Plassey) 전투 승리로 시작된 두 번째 단계에서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상당한 지역들에 걸쳐 정치적 지배력을 장악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1857년 북인도에 걸친 세포이(Sepoy) 반란²⁾ 이후 공식적인 권력이 동인도회사에서 영국 왕실로 넘어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1857년 세포이 반란의 원인, 성격, 영향이 영국의 인도 지배에 중대한 기점이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1757년부터 1857년까지 동인도회사의 지배는 회사에 반대하여 인도인들의 여러 계층에서 큰 불만을 초래했다. 1857년 반란 원인에 대한 연구는 식민지 착취에 대항하는 인도 민중의 총체적 불만에 관해 보다 광범위한 논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란이 무언가 지도력과 조직은 부족³⁾했지만 그럼에도 북인도의 주민들에게 산발적 반향을 일으켰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란에 관한 여러 원인과 맥락이 있었지만 발표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농민의 불만이었다고 논의한다. 동인도회사의 토지 세입 정책, 특히 북인도에서의 영구정액제(Permanent Settlement)와 남인도에서의 료트와리 부담제(Ryotwari Settlement)는 이 지역 농민들의 생존 조건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⁴⁾

초기 영국 식민주의의 성격

동인도회사는 1757년 플라시 전투와 1764년 북사르(Buxar)에서 전투 승리한 후 벵골(Bengal) 주, 비하르(Bihar) 주, 오리사(Orissa) 주의 징세권을 획득한 것은 물론 인도의 다

* 초고 (인용하지 마시오).

1) 많은 학자들이 인도에 대한 영국 식민주의의 시작을 1757년부터 여기며 1757년 이후 영국의 인도 진출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눈다. 더 자세한 사항은 P.N. Chopra, B.N. Puri, M.N. Das and A.C. Pradhan, *A Comprehensive History of Modern India*,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2003을 참조하십시오.

2) '세포이 반란' 또는 '1857년 반란'이라는 용어는 발표문에 내내 사용되었지만 발표문에서 이는 단순한 세포이 반란 이상이며 인도 사회에 걸쳐, 특히 농민들의 불만과 오랜 연관이 있었음을 논의한다.

3) Gregory Fremont-Barnes, *The Indian Mutiny: 1857-58*, New York, Osprey Publishing, 2007, p.61.

4) Eric Stokes, *The Peasants Armed: The Indian Revolt of 1857*, Oxford, Clarendon, 1986.

른 지역들로도 그 힘을 미치고자 했다. 1818년까지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으로 그 힘을 뻗어나갈 수 있었으며 최고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몇몇 국가를 병합하여 직접 지배하는 동시에, 회사의 광범위한 지배를 수용했으나 내부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적으로 남아 있던 일부 인도 통치자들과는 종속조약(subsidiary treaty)을 맺는 이중 지배를 추구했다. 1770년대에 부패와 경영실책으로 인하여 동인도회사는 적자를 드러냈지만 사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었을 때, 영국 정부는 개입을 결정하여 규제법(Regulating Act)을 내놓고 어느 정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어지는 정세 속에서 동인도회사는 자율성을 제한받고 영국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떠맡았다.⁵⁾ 그러므로 이 식민주의의 단계에서 영국 정부가 동인도회사를 통한 인도의 식민지 착취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 식민지 착취의 성격은 동인도회사가 인도의 다양한 경제 분야에 도입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농민들은 새로운 토지 세입 제도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이를 통해 거의 모든 분야의 문제점을 일별할 수 있다. 무굴(Mughal) 시대에 자민다르(Zamindar, 지주)들은 황제를 대신해 세입을 징수했다. 그리하여 토지 관련 권한은 농민들, 자민다르들, 국가가 나누어 가졌는데, 자민다르들은 중개자에 불과했고 토지 소유권은 원할 때 중개자를 바꿀 수 있었던 국가에게 있었다.⁶⁾ 동인도회사가 벵골에서 징세 업무와 민사 재판에 대한 권한(diwani)을 확보했을 때, 그들에게는 이를 경영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인력이 없었다. 이는 약 천만 명이 사망한 벵골 기근을 초래했다. 동인도회사는 명백하게도 이 위기에 개입할 의사가 조금도 없었다. 그렇기는커녕 회사는 세입 늘리기에 관심이 있었다. 같은 목적으로 동인도회사는 1772년 세입위원회(Board of Revenue)를 설립했다. 회사가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세입 징수권이 구역 징세관에게 부여되었다. 회사의 기본 목표는 이전에는 경작자와 자민다르들에게 있었던, 토지에 관한 최대한의 권한과 책임을 얻어 그 세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793년 영대(永代) 소유권으로 인해 세입이 고정된 벵골에 '영구정액제' 규정이 도입되었다. 여러 평가에 따르면, 최소한 액수가 무굴 시대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높았다. 자민다르들은 국가에 내야 할 고정 세입에 대해 알게 되자 야심을 갖고 자신들도 얼마쯤 잉여분을 착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영구 정액제' 지역 농민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자민다르들 또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는데, 높은 세액 때문에 수많은 자민다르들이 체납자가 되고 토지를 몰수당했기 때문이었다. 한 평가에 따르면, 약 3분의 1쯤 되는 자민다르들이 토지권을 상실했고 이는 새로운 자민다르들에게 경매로 팔렸다.⁷⁾

동인도회사는 남인도에서 또 하나의 토지 세입 제도를 공표했는데 이는 료트와리(Ryotwari) 제도라고 불렸다. 그 제도에서는 정부가 토지 세입을 소작농들, 또는 료트ryot들과 직접 정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에 대지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되었다. 새로운 제도는 어느 정도 동인도회사에 토지 직접 지배권을 부여했고 지방의 전통과 조화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지대(land rent)와 지세(land tax)에 대한 규정은 별개로 있었다. 토지

5) Marguerite Eyer Wilbur, *The East India Company and the British Empire in the Far East*, S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6, pp.289-301.

6) Bindeshwar Ram, *Land and Society in India: Agrarian Relations in Colonial North Bihar*, Hyderabad, Orient Longman Limited, 1997, p.129.

7) Raghunath Rai, *Themes in Indian History*, New Delhi, V K Enterprises, 2010, p.205.

유형 분류에 기초해서 20-30년 동안의 평균 지대는 고정되었지만 세금은 비옥도와 실제 생산물 평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세입을 증가시키려는 동인도회사의 욕망과 인도 사회 계층제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는 농민들과 상위 카스트 모두에게 불만을 낳았다.⁸⁾

그러므로 동인도회사 통치기에 영국 식민주의는 토지 세입 제도에 좀더 비중이 있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농민들과 심지어 자민다르들에게도 거의 또는 전혀 배려가 없었으며, 이는 인도인들 사이에 거대한 불만을 야기했다. 자민다르들은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약화되고 동인도회사의 늘어가는 세입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에 불만스러웠다. 농민들은 지역의 자민다르들과 구역 정세관들 양쪽 모두의 이중 억압에 직면해야만 했다. 곧 인도 농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자민다르들이 아니라 동인도회사의 통치라는 것을 깨달았고, 1857년 반란에서 농민의 지원, 역할, 참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나타난 것이다.⁹⁾

세포이 반란의 맥락과 원인들

1857년 반란은 다면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종교와 카스트의 구분을 가로질러 인도인 병사들부터 불만을 품은 토호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도 사회의 각성한 계층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반란의 기원은 지방 폭동과 소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활동 기간은 짧거나 길었으며 동인도회사의 실정 때문에 발산된 것이었다. 부족민과 농민들은 이러한 저항 대부분에서 주요한 구성원이었다. 이러한 폭동이 모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1857년 반란의 선구가 되었다. <표>1에는 1857년 반란 이전 중요한 폭동에 대해 불완전한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8) Usha Jha, *Land, Labour, and Power: Agrarian Crisis and the State in Bihar (1937-52)*, Delhi, Aakar Books, 2003, p.194.

9) Badri Narayan Tiwari, "Identity and Narratives: Dalits and Memories of 1857," in Crispin Bate (ed.), *Mutiny at the Margins: New Perspectives on the Indian Uprising of 1857*, New Delhi, Sage Publications, 2014, p.12.

<표>1 : 1857년 이전 인도의 폭동

폭동	설명
빌(Bhil) 폭동	부족민들은 서고츠(Western Ghats)에 살고 있었다. 경제적 빈곤과 기근, 실정이 1817-18년에 영국에 대항하는 폭동을 야기했다. 폭동은 진압되었지만 계속해서 1819년, 1825년, 1831년, 1846년에 다시 발생했다.
라모시(Ramosi) 폭동	라모시 폭동은 병합 정책과 평판 좋은 통치자들의 폐위로 인한 결과였다. 1818년 페쉬와(Peshwa, 마라타 세습총리의 호칭)가 영국에 최종적으로 패해서 마라타 영토가 병합된 후 라모시족은 생계수단을 상실했다. 1822년 사타라(Satara)의 치투르 싱이 영국의 무거운 과세에 대항하여 라모시족을 규합해서 사타라 인근 지역을 약탈했다. 푸나(Poona) 주변의 라모시족은 1826년 우마지 나이크(Umaji Naik)와 그의 후원자 바푸 트림바크지 사완트(Bapu Trimbakji Sawant)의 지도 하에 반란을 일으켰다.
사완트와디(Sawantwadi) 반란	콜라푸르(Kolhapur)에서의 사건은 사완트와디에 영향을 미쳤다. 사완트와디 주민들은 이미 1830년과 1836년에 영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었다. 1838년에 영국은 법률 옹호 및 국내 치안에서의 실패를 이유로 사완트와디 통치자를 퇴위시키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유럽인 정치 감독을 임명했다. 불만을 품은 통치자들은 고아(Goa)로 도피해서 영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계획했다.
비지아나가람(Vizianagaram) 라자(Raja)의 반란	영국의 초지세입정책은 다수의 반란을 초래했다. 1794년 7월, 비지아나가람의 라자(Raja, 왕)가 공개적으로 영국에 반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영국이 라자의 자민다리(zamindari) 지역을 감소시키고 영국에 지급해야 하는 세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이었다.
폴리가르(Poligar)들의 반란	인도 동부 해안의 폴리가르들은 지방의 군사적 수장들이자 자신들의 관할권 안에서는 영주들이었다. 동인도회사가 1781년 아르코트(Arcot)의 나와브(Nawab, 무굴제국 태수의 호칭)와 맺은 협정은 이들의 지위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다. 수세대에 걸쳐 세입 징수자였던 폴리가르들은 자신들의 권리 침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스스로를 조직하였다.
와하비(Wahabi) 운동	무슬림들은 무굴제국이 동인도회사로 교체되면서 정치력을 상실했다. 기독교와 서양 문화의 확산은 이슬람에 대한 위협으로 비춰졌다. 그들은 영어 교육에 저항했으며 서양의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의 라에 바레일리(Rae Bareilly) 출신 사이예드 아메드(Syed Ahmed)가 아라비아의 와하비 운동을 도입했다.
세포이 반란	인도 세포이들이 일으킨 최초의 반란은 1764년에 발발했다. 이 때 파트나(Patna)에서 미르 카심(Mir Qasim)과 대치하고 있던 헥터 먼로(Hector Munro)의 부대에서 1개 대대 전체가 나와브(Nawab)의 군대로 합류했다. 규율을 좀더 주입하려던 조치들이 1806년 5월 초순, 벨로레(Vellore) 요새에서 또 하나의 반란을 초래했다. 1844년에는 페로즈푸르(Ferozpur)에서 제34연대가 신드(Sindh) 진격을 거부했고, 제7 벙골 기병대와 제64연대가 제34연대의 본보기를 따랐다.

1857년 반란의 원인들

1. 정치적 원인들

동인도회사의 승리는 인도의 정치적 위상에 중대한 정치적 대변동이었다. 특히 소왕국들로 흩어진 왕족들은 회사의 출현이 달갑지 않았다. 이들 가문의 많은 후손들이 동인도회사로부터 정통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와 생계를 잃었다. 예를 들어, 델하우지(Lord Dalhousie)가 펀잡(Panjab)을 병합하자 국왕 란지트 싱(Ranjit Singh)의 아들 달리프 싱(Dalip Singh)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란지트 싱의 후계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 일반 대중도 그들의 생활에 외국의 간섭을 결합시킬 수 없었다. 실제로, 동인도회사는 '실권원칙(doctrine of lapse)'을 도입했는데, 이는 어떠한 왕실의 권리도 정통 계승자가 없다면 소멸되어 회사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사타라(Satara), 자이푸르(Jaipur), 삼발푸르(Sambhalpur), 바가트(Bhagat), 우다이푸르(Udaipur), 잔시(Jhansi), 나그푸르(Nagpur) 왕권은 이 원칙에 의해 동인도회사 아래로 들어갔다. 몇몇 경우에는, 실정 논란 또한 병합의 이유로 언급되었다. 1857년 반란 바로 한 해 전, 오우드(Oudh) 통치자 와지드 알리 샤(Wajid Ali Shah)는 이런 핑계로 퇴위당했다.

동인도회사를 향한 또 다른 중요한 정치적 불만은 1803년부터 무굴 황제들을 무력화시켜 회사에 의존하도록 한 데서 나왔다.¹¹⁾ 무굴 황제들과 동인도회사 총독 간의 관계는 점차 변모해 총독이 전권을 갖게 되고 황제는 유명무실해졌다. 무굴 황제는 거처와 후계자 임명권을 빼앗겼으며 이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데 익숙했던 인도 대중들과는 상당히 어울리지 않았다. 인도의 국왕들과 황제들을 더욱 모욕한 것은 이들의 연금을 중단하거나 줄인 것이었다. 마하라야 란지트 싱(Maharaja Ranjit Singh)의 왕비 라니 진단(Rani Jindan)의 1년 연금은 15,000파운드에서 1,200파운드로 줄었다. 나나 사히브(Nana Sahib)와 잔시의 락슈미 바이(Lakshmi Bai)의 연금은 중단되었다. 카르나틱(Carnatic)과 탄조레(Tanjore)의 이름뿐인 군주권 또한 폐지되었다.

2. 행정상의 원인들

동인도회사의 통치는 또한 인도의 행정에 '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들여왔다고 언급된다. 협정은 출생에 기반한 계층제와 카스트가 핵심 개념이었던 인도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전혀 맞지 않았다. 회사는 인도인들의 사회적 생활 방식에 하등의 간섭을 피하려 했지만 전통적 가치들과 근대적 관료제 간 부적절한 어울림은 큰 적응 문제를 만들어냈다.¹²⁾ 무엇보다도 식민지 통치기에 행정의 비인격적 속성은 무굴 시기의 인격화된 처우와는 전적으로 달랐다. 영국에서 차용한 이국적이고 복잡한 규칙과 법률을 인도인들 대다수는 알지 못했고, 그 이

10) Claude Markovits, *A History of Modern India, 1480-1950*, London, Anthem Press, 1994, p.276.

11) Lynn Zastoupil, *John Stuart Mill and Ind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71.

12) Ian Duncanson, *Historiography, Empire and the Rule of Law: Imagined Constitutions, Remembered Legalities*, New York, Routledge, 2012, p.135.

래로 인도인들은 행정상 상위 직급을 받을 수 없었는데, 토착민이 이러한 법률에 익숙해지기란 쉽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 인도인들은 인종적 편견 때문에 행정상 상위 직급에서 인도인들이 배제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의 근본적 이유는 동인도회사 영국 관리들에게 인도인과 그들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3. 경제적 원인들

필시 1857년 반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었다.¹³⁾ 동인도회사의 주요 목적은 인도의 자원을 착취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인도 상품의 무역 및 상업에서는 높은 관세율로 인해 이익이 덜 나도록 하는 반면 영국 상품의 수입은 더 쉽게 하는 규칙과 법률들을 만들어 냈다. 가장 심대한 피해자는 면직과 비단 무역에 관련된 인도 주민들이었다. 인도에 동인도회사의 통치가 출현하면서 인력 노동과 수제품에 기반하여 생산하고 있던 인도의 가내 및 영세 산업은 심하게 침해를 받았다. 인도의 시장에는 영국에서 온 기계화로 생산된 상품들이 범람했다. 이 시기에 도시와 촌락에서 막대한 숫자의 장인, 방적공, 직공(織工), 제련업자, 금속세공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직업을 바꿔야만 했다. 그들은 이미 초만원인 농업 부문으로 이동했다. 동인도회사는 또한 최대한의 세입을 얻기 위해 인도 농업 부문에 수정을 가했다. 농민의 상황은 여러 착취적 세제의 도입으로 악화되어 갔다. 그 쟁점은 발표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동인도회사의 관리들은 차와 인디고(indigo) 농장이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고는 점차 이러한 사업 대부분을 장악해 갔다.¹⁴⁾ 그들이 이러한 분야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한 방식은 이들 노동자들과 사회 전반을 불만스럽게 했다. 요약하자면, 동인도회사의 경제 정책들은 주되게는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삼았고, 그 결과 인도 무역업자들, 장인들, 농민들과 사회가 전체적으로 회사의 통치에 적의를 갖게 되었다.

4. 사회-종교적 원인들

동인도회사 통치에 대한 불만은 또한 인도인들에 대한 영국의 전반적 태도와도 관계가 있었다. 그들은 인종적 이론을 근거로 인도인들을 중요한 직급에서는 제외시켰다. 인도인들은 영국 관리들을 공경해야만 했고, 어떠한 무례한 표현이라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다수의 전통적인 인도인들 또한 회사가 1829년에 사티(Sati)를 폐지하고 1856년에 과부 재가를 허용했기 때문에 동인도회사 통치가 달갑지 않았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인도인들의 문화적·사회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간섭으로 의심되는 일은 1813년 특허법(Charter Act of 1813)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와서 종교를 전파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늘어났다.¹⁶⁾ 이들 선교사들은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모든

13) Rebecca Merritt, "Public Perceptions of 1857: An Overview of British Press Responses to the Indian Uprising," in Andrea Major and Crispin Bates (eds.), *Mutiny at the Margin: New Perspectives on the Indian Uprising of 1857*, New Delhi, Sage Publications, 2013, p.6.

14) Nancy Gardner Cassels, *Social Legislation of the East India Company: Public Justice versus Public Instructi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2010, p.345.

15) Gulcharan Singh, "Cartridge Fable," in H S Bhatia (ed.), *India in 1857: Before and After*, New Delhi, Deep and Deep Publications, 2008, p.171.

16) Sekhar Bandyopadhyay, *From Plassey to Partition: A History of Modern India*, Hyderabad,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인도의 종교적 전통들을 조롱했다. 기독교 사상이 인도의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는 일이 많았고, 이는 거의 모든 인도인 계층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여겨졌지만 그들에게는 1857년 반란 이전까지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5. 군사적 원인들

인도의 군대 또한 동인도회사 통치에 대해 몇 가지 불만을 갖고 있었다. 특히 벵골군(Bengal Army) 내의 상위 카스트 출신 병사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의식(儀式)과 관습에 충실할 자유가 결여되어 불만을 품었다.¹⁷⁾ 힌두교도, 이슬람교, 시크교도 세포이들에게는 군대의 규율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종교적 관습 활용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는 그들에게 거대한 불만을 일으켰다. 또한 이들 인도의 세포이들은 대체로 상위 계급으로 승진되지 않았고, 영국 관리들 아래서 근무해야 했기 때문에 불만스러웠다. 세포이들의 봉급 또한 그들의 계급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었다. 인도 병사들은 또한 그들을 버마와 아프가니스탄 군사 원정에 파견하려는 동인도회사의 결정에 분개했다.¹⁸⁾ 1856년, 동인도회사는 인도인 병사들을 완전히 통제하고자 일반 복무 조례(General Service Enlistment Act)를 선포하여 회사는 이들을 어디로든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동인도회사가 인도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감수성 없이 직업군인을 지나치게 빨리 만들어내려 했다고 생각된다.

6. 직접적 원인들

어떤 면에서, 동인도회사의 인도 통치가 인도 사회의 계층들 전반에 걸쳐 불만을 창출했고, 인도인들 대다수가 불만스러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불만을 조직하고 연결할 기구가 없었다. 그리하여 동인도회사에 대항하는 근소하고 산발적인 폭동과 저항만이 있었을 뿐 대규모 운동은 없었다. 1857년 반란은 이 불만들이 합쳐져 동인도회사 통치에 맞서 싸우는 기회를 부여했다. 반란은 동인도회사가 탄환을 재려면 병사들이 기름칠 된 탄약통 포장지를 물어뜯어야 하는 신형 엔필드(Enfield) 라이플총을 도입했을 때 시작되었다. 이 기름칠 된 탄약통들에 소와 돼지기름이 포함되어었다고 알려졌는데, 소와 돼지는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게 각각 종교적으로 금지된 것이었다. 1857년 초, 동인도회사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신앙심을 말살하려고 고의로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벵골 군의 병사들은 이 라이플총 사용을 거부했고 영국인 장교들은 이를 반항 행위로 간주했다.

1857년 반란의 과정과 성격

Orient Longman, 2004, p.140 and M Mohar Ali, *The Bengali Reaction to Christian Missionary Activities, 1833-1857*, Chittagong, 1966.

17) Madan Paul Singh, *Indian Army Under the East India Company*,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1976.

18)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J.A.B. Palmer, *The Mutiny Outbreak at Meerut in 1857*,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and James W Hoover, *Men without Hats: Dialogue, Discipline and Discontent in the Madras Army, 1806-1807*, New Delhi, Monohar, 2007.

반란은 미루트(Meerut)에서 제34 토착민 보병연대의 세포이가 그의 중위에게 발포했을 때 개시되었다.¹⁹⁾ 그는 체포되어 처벌을 받았다. 다수의 여타 불복종 사건들이 다른 장소들에서 그 다음 몇 달 안에 일어났다. 결정적으로, 85명의 인도인 세포이들이 5월에 군법회의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로 반란이 개시된 것이다. 인도인 세포이들은 장교들을 사살하고 동료 세포이들을 석방했다. 그리고 델리(Delhi)를 향해 진격했다. 다음 며칠 안에, 그들은 델리에 도착해서 도시를 장악했다. 반군들은 바하두르 샤 2세(Bhadur Shah II)을 인도 황제로 복위시켰다. 한편으로 반란은 칸푸르(Kanpur), 아그라(Agra), 럭나우(Lucknow), 잔시(Jhansi), 그리고 북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²⁰⁾ 그러나 그것은 협력이 잘 되는 반란이 아니었고 동인도회사는 점차 빼앗겼던 도시들과 공공시설을 탈환할 수 있었다. 9월에 델리는 반군의 수중에서 구출되었고, 바하두르 샤는 주방당했다. 1858년 3월까지, 동인도회사는 럭나우를 제어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1858년 중반까지, 동인도회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반란을 진압했다. 팔리오르(Gwalior), 하이데라바드(Hyderabad), 네팔(Nepal)처럼 많은 인도 통치자들이 반란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동인도회사에 대한 그들의 조력이 반란이 쉽게 진압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였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

반란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학파는 그것이 주로 세포이 반란이었다고 하는 반면, 다른 학파는 이를 '제1차 독립전쟁'으로 본다.²²⁾ 하지만 진실은 이들 두 극단적 입장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Jawaharlal Nehru)는 그것이 세포이 반란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퍼져 나가 대규모 반란이 되었다고 언명한다.²³⁾ 반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영국의 지배를 축출하기 위한 힌두-이슬람교도의 공모라거나 두 인종 간 전쟁, 또는 봉건제와 제국주의 간 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몇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다. 만일 반란이 인도에서 동인도회사 통치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면, 봉건 영주들은 그로부터 생기는 이득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토지를 소유한 귀족 계급은 동인도회사가 도입한 새로운 토지 법령들이 매우 불만스러웠으며 그에 반대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동일한 이유로, 그들은 반란 기간 동안 대단히 적극적이었다.²⁴⁾

이 사건이 '제1차 독립전쟁'이었다는 주장은 보다 많은 민간인들 또한 여기에 참가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심지어 반란 진압 이후에도, 동인도회사를 지지했던 민간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 양자가 함께 동인도회사 통치에 맞서 싸웠다는 점 또한 유일무이했다. 그러나 민간인의 참여와 관련성이 균등하지 않았고 장소와 맥락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더욱이 반란의 지방 지도자들은 반란을 조국 인도를 위한 전쟁으로 생각해서 아니라 사

19) Kim A Wagner, *The Great Fear of 1857: Rumours, Conspiracies and the Making of the Indian Uprising*, Oxfordshire, International Academic Publishers, 2010, p.82.

20) Ranbit Vohra, *The Making of India: A Political History*, New York, M E Sharpe, 2013, (Third Edition), p.76.

21) Ibid. p.80.

22) Vinayak Damodar Savarkar, *The Indian War of Independence*, Bombay, Sethani Kampani, 1909.

23) Jawaharlal Nehru, *Discovery of India*, Calcutta,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24) Ranjit Guha, *Elementary Aspects of Peasant Insurgency in Colonial India*,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리사옥 때문에 이에 관계했다. 비판 찬드라(Bipan Chandra)처럼 보다 중도적인 역사가들은 반란의 연속된 흐름들 외에 최소한 두 평행선-세포이 반란과 시민 대중들의 반란이 있었다는 의견이다.²⁵⁾ 그러므로 비록 반란이 '제1차 독립전쟁' 수준에 미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 흐름을 간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1857년 반란의 영향

그 사건은 인도의 식민사에서 실로 중대한 이정표였다. 반란의 가장 중대한 영향은 인도 통치 권력이 동인도회사에서 영국 왕실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영국 정부는 명확한 행정 기구와 인도 통치 법령들을 계획하였고, 인도의 관습과 문화적 가치들에 불필요하게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중대한 변화는 인도 군대 조직에서 일어났다. 더 많은 영국인 장교들이 충성 보장을 위해 군에 들어왔고, 인도인 병사들의 수는 1857년 시기 이전의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되었다. 반란 기간 동안 동인도회사에 충성스럽게 남아 있던 지역 출신 병사들의 수는 증가되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영국은 병합 정책이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 정책은 토후국들과 그 통치자들에게 영국의 식민지 구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농민들과 1857년 반란

몇몇의 농민 반란은 1857년 반란의 중요한 선구였다.²⁶⁾ 식민지 경제 정책들, 새로운 토지 세제, 식민지 행정 및 사법 제도들, 그리고 수공업품의 몰락으로 토지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밀어 넣어졌다. 이는 농업 구조를 변형시키고 농민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광활한 자민다르 관할 지역에서 농민들은 엄청난 지대를 물리고 불법적 세금을 강요하는 자민다르들에게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 료트와리 지역들에서는 정부가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점차 많은 지역에서 사실상의 경작자들이 예고 없이 언제나 내보낼 수 있는 차지인(借地人)의 처지로 몰락했다. 농민들은 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억압과 착취에 맞서 저항했다. 그들은 그들의 표적이 토착적 착취자인지 아니면 식민 통치인지 알아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진짜 적은 식민지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다. 쫓겨난 많은 농민들이 강도질을 하게 되었는데, 무장 강도단의 일원이 되는 것과 의적(social banditry)이라고 불리던 것으로, 굶주림과 사회적 추락보다는 차라리 강도질을 택했다. 오우드와 서부 우타르 프레데시(Uttar Pradesh)에서 농민은 지방 자민다르들의 폭압적 권력을 잊고 외국의 제국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 지방의 봉건적인 지도부에 합류했다.

19세기에는 1857년 반란과 인도에서 식민주의가 갖는 성격 간에 직접적 관련성을 발견

25) Bipan Chandra, Mridula Mukherjee, Aditya Mukharjee, Sucheta Mahajan and K N Panikkar, *India's Struggle for Independence*, New Delhi, Penguin Books, 1988, pp.31-40.

26) S.B. Chaudhuri, *Civil Rebellion in the Indian Mutinies, 1857-1859*, Calcutta, World Press Private, 1957.

한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 1857년에 어니스트 존스(Earnest Jones)는 반란이 인도에 대한 식민지 착취를 폭로했다고 기술했다.²⁷⁾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인도에 대한 식민지 착취를 시민 대중이 나타낸 분노와 결부시켰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국 식민주의에 함께 맞서 싸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들 간에 공동의 화합이 갖는 가치를 인정했다.²⁸⁾ 1920년대에 M.N. 로이(M.N. Roy)와 다른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반란이 낡은 봉건제도와 새로 도입된 상업 자본주의 간의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²⁹⁾ 그러나 일부의 다른 인도인 학자들은 이를 체계적으로 농민의 불만과 관련지었다. 라즈니 팔메 더트(Rajni Palme Dutt)는 비록 특권을 되찾아 외국이 지배하는 형세를 돌이키려고 싸웠던 부패한 봉건 세력이 반란을 이끌었는지라도 1857년 반란은 중요한 농민 반란이었다고 기술했다.³⁰⁾ 이는 학자들이 내부적 봉건 질서를 문제 삼으면서도 1857년 반란의 대중적 기반이 갖는 가치를 인정한 흥미로운 논의였다. 농민들은 이러한 대중적 기반의 중요한 요소였다. 농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입증할 문서 증거들이 많지 않고 민간전승과 반란의 여러 선구들을 목살하기 쉽지만 농민들이 반란의 중추였다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 발표문의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듯이, 1852년 칸데쉬(Khandesh)·다르(Dahr)·말와(Malwa)에서 빌족(Bhil)들, 1855-6년 라즈마할(Rajmahal)·바갈푸르(Bhagalpur)·비르부姆(Birbhum)에서 산탈족(Santal)들, 1836-1854년 시기에 말라바르(Malabar)에서 마필라족(Mapilla)들, 1855-60년 굤사르(Ghumsar)와 바우드(Baudh)에서 칸다족(Kandha)들, 그리고 1856-57년 팔리아케메디(Parliakhemedi)에서 사바라(Savara)족들의 반란은 영국 식민주의에 대항한 농민 불만의 전형이다. “역사의 흐름을 엄밀하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직접적 압제자 뿐 아니라 식민 통치에 맞서 투쟁하는 중에 과거의 구성 요소들을 생각할 수 없거나 구체화시킬 수 없다는 추정은 실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1857년 반란을 정밀하게 서술하는 데만 전념하는 것은 충분치 않을 것이며, 이를 인도 농민 저항의 사회사적 맥락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P.C. 조시(P.C. Joshi)는 잔존해 오던 민요 시들을 구체화시켜 그 시기의 민중문화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1857년 반란을 이해하려고 했다.³¹⁾ 에릭 스톱스(Eric Stokes) 또한 배경, 사회 구성에 관한 인구통계학적·생태학적 특징들, 농민들의 역할, 특히 ‘부유한’ 농민들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했다.³²⁾ 농민의 불안정에 대해 지방에 국한된 삽화적 사건들과 이들의 특징을 검토해 온 몇몇 다른 연구들도 있다.³³⁾

결론

27) Ernest Jones, *The Revolt of Hindoostan or The New World*, Calcutta, Calcutta Eastern Trading, 1957.

28) K. Marx and F. Engels, *The First Indian War of Independence, 1857-1859*,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0.

29) M.N. Roy, *India in Transition*, Bombay, Nachiketan Publishers, 1971.

30) Rajani Palme Dutt, *India Today*, Calcutta, Manisha, 1947.

31) P.C. Joshi (ed.), *Rebellion 1857: A Symposium*, New Delhi, People's Publishing House, 1957.

32) Eric Stokes, *Peasant and the Raj: Studies in Peasant Society and Agrarian Revolt in Colonial In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and Eric Stokes, *The Peasant Armed: The India Revolt of 1857*, op. cit.

33) Rudrangshu Mukherjee, *Awadh in Revolt, 1857-58: A Study of Popular Resistance*,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and Tapti Roy, *The Politics of a Popular Uprising: Bundelkhand in 1857*,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결론적으로 1857년 반란은 가장 강력한, 산발적이고 극적인 반식민지 운동들 중 하나였으며, 이는 19세기 전반기에 걸친 무자비한 제국주의자의 맹습에 맞서 농민들과 지주 계층들을 결속시켰다. 동인도회사의 정책들은 1857년 반란으로 최고조에 달한, 인도 사회 전반에 걸친 불만의 환경을 창출한 책임이 있었다. 회사는 두 가지 목표, 이익 극대화와 최소한 1757년부터는 정치적 지배권 추구라는 목표에 일로매진하였다.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었고 인도 민중은 불만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비록 반란에 대한 어떠한 상세한 연구도 반란의 원인을 제공한 몇몇 다른 요인들을 배제할 수 없을지라도, 미묘한 차이를 떼 어떤 관점은 반란에서 농민들의 중심적 역할을 제기하려 했다. 그들이 반란의 맨 앞줄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민들은 반란을 일어나게 한 인도 사회의 핵심 계층들 중 하나를 구성했다. 발표문은 또한 1857년 반란을 주제로 한 인도 역사 서술의 발전을 제시하는데, 이는 1857년 반란을 단순한 세포이 반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당대 사회사를 깊게 파고들어 점차 인도 사회의 다른 계층들의 역할을 탐구했다.

中國의 義和團運動-歷史와 神話 사이

이은자 (부산대)

목차

- I. 서론
- II. 神話化된 의화단운동-의화단의 反帝
- III. 지역의 관점에서 본 의화단운동
 - 1. 의화단운동의 기원, 배경
 - 2.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적응인가? 충돌인가?
- IV. 결론

I. 서론

中國의 義和團運動(Boxer Uprising)은 清末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1911년 신해혁명 이전 발생한 대규모의 무력 충돌(armed conflict)이다. 의화단(boxer)은 대부분 1890년대 초 이래 계속된 자연재해로 빈곤에 내몰린 농촌청년이 많았다. 이들은 '降神附體(spirit possession) 刀創不入(invulnerability)' 곧, 神이 몸에 빙의하여 창과 칼로도 傷害하지 못하는 不死身이 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 降神附體 의식은 華北平原의 농촌청년이 쉽게 학습할 수 있었고 하나의 촌락에서 다른 촌락으로 전파되면서 華北의 대부분 지역을 석권하였다.

의화단운동의 排外的 성격은 의화단이 중국기독교민과 외국선교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표현되었다. 이것은 中外關係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와 외국 열강의 군사적 간섭을 가져왔다. 清朝는 1900년 6월말 열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의화단을 공인하였다. 아울러 '北京 공사관 포위'(Siege of Peking)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결국 열강에 의해 공사관 포위는 해제되고 清庭은 西安으로 도피하였다. 天津에 이어 北京을 점령한 열강은 의화단을 진압하고 중국에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의화단 전쟁(Boxer War) 이후 20세기 초 10년 간 청조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실행하였으나 1911년 혁명으로 붕괴되었다. 1900년 이 해는 중국 역사상 분수령이 되었다.

의화단운동은 反帝(anti-imperialism)의 애국 운동인가 아니면 意識 落後(backwardness), 封建 迷信(superstitiousness)의 농민 운동인가. 제국주의가 중국을 분할(瓜分)하는 위기를 완화하였는가 아니면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방해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의화단운동의 성질과 의의는 과거 중국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모하였다.

의화단운동은 중국인과 서양인의 심중에 영향력을 주는 신화(myth)를 형성하였다. 20세기 초 서양에서 의화단은 '黃禍의 化身'(the Yellow Peril personified)으로 간주되었다. 의화단의 언행은 서양인에게 '위기(danger), 외국인 혐오(xenophobia), 非理性(irrationality), 야만(barbarism)' 등을 연상시켰다. 1920년대 초 중국의 지식인에게도 의화단은 迷信과 落後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국의 민족주의와 배외주의의 고조기에 의화단운동은 '애

국주의'(patriotism)와 '제국주의 반대'의 상징으로 재평가되었다. 의화단의 신화화는 문화대혁명 시기 정점에 달했다.¹⁾

1980년대 들어서면서 歷史로서의 의화단과 神話로서의 의화단은 구별되었지만 중국학계에서 의화단운동은 여전히 제국주의의 중국 분할(瓜分)에 과감하게 저항한 '反帝愛國運動'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의화단운동의 발생 원인에서 제국주의가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의화단운동을 反帝 운동으로 일원화하여 평가하면 의화단이 어떤 특수한 지역적 환경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복잡한 동기를 단순화하게 되고 의화단운동의 다양한 측면을 사상시킬 우려가 크다.²⁾

본문에서 서술하겠지만 주로 서구학자를 중심으로 기존의 의화단, 혹은 民教(non-Christians and Christians) 관계에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생산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의 관점'(local perspective)에서 의화단운동, 혹은 民教關係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필자 역시 지역의 관점에서 清末 山東의 民間宗教結社(folk religious sects)와 拳會(boxer)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는 첫째, 과거 중국에서 의화단운동의 신화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국주의 문제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의화단운동의 기원, 배경을 검토하고,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관점'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화단운동의 跨國(transnational)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II. 神話화된 의화단운동-의화단의 反帝

의화단이 남긴 자료는 의화단 리더 혹은 의화단을 지지하는 사람이 쓴 수백 건의 揭帖(notice)과 반 세기 이후 수집된 口述 사료(oral history testimony) 이외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의화단 반대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다. 수많은 농촌청년들이 降神附體 신앙을 학습하고 의화단에 참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동기 때문인가.

대다수 서양인들은 의화단을 排外, 迷信, 야만 잔인(savage brutality)과 落後의 상징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인이 쓴 의화단 일기, 기타 문자 자료에서도 의화단은 '盜賊', '亂民', '暴徒'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비평은 혁명파의 저작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鄒容(Zou Rong)은 1903년 그의 유명한 저작 『革命軍』에서 '野蠻의 혁명'과 '文明의 혁명'을 구분하였다. 전자의 파괴는 인민을 고통, 재난에 빠뜨리는 것이지만 후자의 파괴는 자유, 평등, 독립, 자주 등의 권리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야만의 혁명은 의화단, 문명의 혁명은 영, 미, 프의 혁명이었다. 그는 의화단을 중국사회에서 파괴라고 생각되는 일체의 것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³⁾

의화단운동의 신화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陳獨秀(Chen Duxiu)이다. 그는 1918년 가을 당시 신문화운동의 영향력 있는 잡지 『新青年』에 「克林德碑」라는 문장을 발표하였다.

1) Paul A. Cohen, *History in Three Keys: The Boxers as Event, Experience, and Myth*,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7, Preface.

2) 編集部, 「『義和團百年』の特集あたって」, 『中國 21』(愛知大學現代中國學會 編) Vol. 13, 2002, 3쪽.

3) Paul A. Cohen(1997), pp. 223-225, 237.

이 문장을 발표한 시점은 제1차 대전에서 독일에 대한 승리로 중국이 떠들썩할 때였다. 당시 사람들은, 1900년 6월 독일 駐華公使 폰 케틀러(Clemens von Ketteler)가 北京에서 의화단에게 살해되자 독일의 요청으로 살해 지점에 세운 케틀러비(the von Ketteler Monument)를 훼손하였다. 陳獨秀는 제1차 대전의 승리에서 중국이 점한 비중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승리를 경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陳獨秀는 이 문장에서 의화단이 조성된 원인을 첫째 道教, 둘째 佛教, 셋째 孔教, 넷째 儒(教)·佛(教)·道(教) 三教合一의 中國戲(Chinese opera), 다섯째 마지막으로 新學을 仇敵視하는 守舊黨 등 5가지로 정리하고, 케틀러비로 상징되는 제국주의는 중국을 위협에 빠뜨린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라고 하면서, 중국을 위협에 몰아넣은 원인은 의화단으로 상징되는 중국사회의 문화적 분위기라고 하였다.⁴⁾ 다시 말하자면 陳獨秀는 중국문제의 근원은 중국 문화에 있고 그 문화의 상징을 의화단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문화운동 시기 의화단은 落後, 迷信과 非理性的의 무리로 간주하였지만 오사운동 이후 反帝의 애국자로 변모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은 陳獨秀의 문장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924년 9월 중국국민당은 1901년 9월 7일에 체결된 辛丑條約 23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9월 7일을 國恥日로, 이 주를 反帝 주간으로 정하였다. 陳獨秀는 공산당 기관지 『嚮導』 9월 7일 特刊號에 「我們對於義和團兩個錯誤的觀念」이라는 문장을 게재하였다. 그에 따르면, 의화단운동은 중국현대사상 중요 사건으로 그 중요성은 辛亥革命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홀시하고 의화단에 대해 두 가지 착오의 관념을 갖고 있다.

제1의 착오 관념은 의화단을 野蠻의 排外라고 증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화단 排外의 근원은 외국의 압박과 착취 때문이다. 의화단의 폭력은 근본적으로 외국제국주의의 野蠻과 殘忍과 비교될 수 없다. 전 세계 도처에서 迷信, 守舊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의화단의 守舊과 迷信만이 괴이한가. 최후에 野蠻과 文明의 함의는 무엇인가. 최악은 외국제국주의 세계에 있다. 不撓不屈의 反帝 투쟁이 야만 행동인가. 제국주의에 아첨하는 것이 문명인가. 제2의 착오 관념은 의화단 사건은 일부 사람이 범한 죄악인데 열강은 소수가 아니라 중국인민에게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열강의 압박에 따른 고통은 의화단만이 아니라 전 중국인이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이 1918년 이전에는 의화단의 야만, 보수, 맹목적 배외와 미신을 질책하였던 陳獨秀는, 1924년 시점에서 의화단의 약점을 옹호하고 反帝 활동을 전 중국민의 행위로 긍정 평가하였다. 의화단의 경험상 排外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염치없고 反文明的이라는 사고를 바꾸어, 중국인의 反帝 행위에 명분을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 反帝 민족주의의 흐름 속에서 의화단 신화는 재창조되었다.⁵⁾

문화대혁명 시기에 의화단은 더욱 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 1967년 봄 당시 紅衛兵(Red Guards)의 활동이 왕성하였을 때 중국 매체에서는 연일 홍위병과 의화단 특히 紅燈照(Red Lanterns)와의 유사점을 강조하였다. 紅燈照는 여성의 혁명 정신을 체현하고 反帝에 참여하였으며, 일체의 우상을 타파하였다. 따라서 紅燈照와 홍위병은 친형제자매이고 造反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 1967년 紅燈照가 여성 혁명조직으로 주목받았다면, 1973년 批孔運動(anti-Confucian campaign) 시기 紅燈照는 父權 사회에서 부녀 해방의 상

4) Paul A. Cohen(1997), pp.227-230.

5) Paul A. Cohen(1997), pp.241-245 ; 金富軍, 蔡樂蘇, 「陳獨秀對義和團的認識變化及其政治意涵」, 『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第59卷 第2期, 2006, 230-234쪽.

정으로 재탄생하였다. 특히 天津의 유명한 紅燈照 리더 林黑兒(Lin Heier)는 傳記 인물로 제조되고 애국주의와 부녀운동의 상징으로 신화화되었다.⁶⁾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의화단의 反帝가 신화화된 것이라면, 의화단운동에서 反帝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이후 歷史로서의 의화단과 神話로서의 의화단은 구별되었지만 의화단운동에서 제국주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주제이다.

2010년 10월 중국 山東大學에서 의화단운동 110주년 국제학술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년 뒤 발간된 논문집에서 의화단과 제국주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논문은 1편이다. 그에 따르면, 의화단운동은 근대 중국의 농민을 주체 역량으로 하는 자발적인 反帝애국운동으로, 의화단운동 폭발 시대는 제국주의 이론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은 제국주의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의화단운동이 폭발하였을 때 중국민중이 이해한 제국주의 개념은 감성적이고 단편적이며 우매하였지만 제국주의에 대한 반응은 심각하고 강력하였다. 당시 의화단은 제국주의를 직관적으로 기독교로 이해하였고, 滅洋排外의 구체적 형식은 기독교 반대로, 교회세력을 자본주의 식민세력으로 간주하였다.⁷⁾ 의화단운동 폭발 시 중국민중은 감성적이고 단편적으로 제국주의를 이해하였지만, 의화단운동이 농민이 주도한 자발적인 反帝운동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이 관점은 지금 현재 중국학계의 견해를 대변한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반면 일부 서구학자는 의화단운동을 反帝 운동으로 보는 견해에 비판적이다. 미국학자 코헨(Paul A. Cohen)은 의화단운동에서 제국주의가 중요한 배경 요소임은 동의하지만 19세기 말 중국 상황에서 제국주의가 심각하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⁸⁾ 그에 따르면, 1900년 봄과 여름 의화단운동이 정점에 달한 시기의 역사에서 의화단과 선교사(교민) 쌍방은 종교적 의미에서 주변의 상황을 이해하였다. 당시 의화단과 선교사(교민)는 모두 종교적 관점에서 화북 평원을 휩쓴 엄중한 旱災(drought)와 戰爭을 해석하였고 자신의 神에 의뢰하여 상대방을 꺾어내었다. 의화단운동은 외국인에 대한 仇敵과 恐怖에 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의화단 揭帖 등에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의화단운동은 排外이지 反帝가 아니며, 反帝 운동로서의 의화단은 신화화된 것이다.⁹⁾

이상 코헨의 견해에 의하면, 의화단운동에서 제국주의가 중요한 배경 요소임은 인정하지만 당시 의화단운동에 참여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의화단운동은 反帝가 아니라 排外運動이었다. 의화단의 참여 동기는 다양하며 애국주의 혹은 反帝 사상으로만 축성된 것은 아니다. 당시 의화단 揭帖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두드러진 동기는 排外이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1899~1900년 화북 평원에 만연된 旱災이다. 의화단 揭帖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음은 洋人, 洋教 때문이므로 洋人과 洋人에게 오염된 중국인을 살해하자는 내용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¹⁰⁾

의화단의 참여 동기는 反帝인가, 排外인가, 아니면 旱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그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가. 다음 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화단운동의 기

6) Paul A. Cohen(1997), pp.270-274 ; 李鈞, 「神話的革命與革命的神話—義和團與文化大革命」, 『粵海風』(廣東省文學藝術界聯合會), 2001年 第5期; 劉平·朱丹, 「魚家女·紅燈照·黃蓮聖母—義和團時期天津“黃蓮聖母”形象研究」, 『義和團運動11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中國義和團研究會編,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12), 480-492쪽.

7) 田海林, 王振, 「義和團與帝國主義」, 『義和團運動11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36-53쪽.

8) 「(座談) 義和團への視座—愛國か排外か—」, 『中國 21』, 13-14쪽.

9) (美) 柯文, 「義和團, 基督教和神—從宗教戰爭角度看1900年的義和團鬧事」, 『歷史研究』(中國社會科學院) 2001年 第1期, 17-28쪽.

10) Paul A. Cohen(1997), pp.89-95.

원, 배경 등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III. 지역의 관점에서 본 의화단운동

1. 의화단운동의 起源, 背景

의화단운동은 국내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적 특색을 갖는 운동(regional movement)이었다. 1900년 여름 山西, 내몽고, 東北(만주) 지방에서 일부 공식적인 지지를 받는 義和拳(Boxer militia)이 출현한 것 말고, 이 운동은 실제로 화북 평원의 山東과 直豫 부분에 한정되었다.

이런 점에서 의화단운동 발생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중국 의화단 연구의 권위자 路遙(Lu Yao)의 '의화단 연구 시각을 지역에 대한 고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같은 맥락이다. 路遙에 따르면, 의화단운동은 세 지역에서 폭발하였다. 첫째는 大刀會(Big Sward Society)가 활약한 曹州 중심의 산둥 서남부, 神拳(Spirit Boxer)이 발전한 茌平, 平原을 핵심 지역으로 하는 산둥 서북부, 義和拳(Yi-he Boxer)이 유행한 冠縣 梨園屯 중심의 直豫·山東 交界가 그것이다.¹¹⁾

의화단운동의 기원 문제를 탐색한 미국학자 에세릭(Joseph W. Esherick)은 의화단운동의 발원지 山東의 지리, 정치, 경제와 사회 조직 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¹²⁾ 그는 기원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路遙의 관점을 받아들였다. 대체적으로 산둥 서남부의 大刀會는 刀槍不入 의식을 제공하였고, 直豫·山東 交界의 義和拳은 義和團의 이름을 가져왔으며, 산둥 서북부의 神拳은 降神附體 의식을 더하였다. 에세릭은 의화단의 의식과 실천의 원천을 同時期の 민중문화(popular culture)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민중문화 기원론은 산둥 서북부에서 유행한 神拳과 그 降神附體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神拳의 의식이 白蓮教(White Lotus)와는 구별되며 화북 농촌의 문화, 관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¹³⁾

물론 에세릭의 기원설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일본학자 佐藤公彦(사토 기미히코)은 神拳과 白蓮教는 無關한 조직이라는 에세릭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의화단의 백련교 기원설을 강하게 주장하였다.¹⁴⁾ 路遙는 대도회의 刀槍不入과 신권의 降神附體가 비록 이후 의화단의 전형적 의식을 제공했지만, 운동의 발생, 발전 과정에서 의화권이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하였다. 山東·直豫 交界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梅花拳은 '의화권'으로 개명하고 의화단의 이름 뿐 아니라 조직의 전형을 제공하였다. 의화권의 前身인 매화권은 그 안에 엄밀한 조직(文場과 武場)과 군중에게 호소력 있는 拳術을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明朝 中期

11) 路遙, 『義和拳運動起源探索』,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1990, 1-3쪽.

12) Joseph W. Esherick, *The Origins of the Boxer Uprising*, Univ.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87, pp.1-37.

13) 의화단 종교 의식의 관건 요소는 대다수 華北의 농민에게 이미 익숙한 무술(martial arts)과 민간 종교의 관행(folk religious practices)에서 흡수한 것이었다. 降神附體의 개념은 妖魔를 퇴치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화단이 附體하는 대부분의 神은 廟會 혹은 기타 향촌에서 연출하는 戲劇에서 익숙한 소재였다. Joseph W. Esherick(1987), pp.63-67, 327-331.

14) 佐藤公彦, 「義和團の起源について: J. W. エシエリク説への批判」, 『史學雜誌』 第104卷 第1號, 1995.

羅祖의 無爲敎 계통에 속하는 자체의 經卷을 가지고 있는 民間宗教의 성격의 拳會였다.¹⁵⁾ 또한 에세릭은 降神附體 의식이 백련교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지만, 路遙, 程驥(Cheng Xiao)는 이 시기 白蓮敎가 降神附體 의식을 흡수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¹⁶⁾

의화단 기원설을 둘러싼 비판에도 불구하고, 에세릭은 지역의 관점에서 의화단 연구라는 새 장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촌락 엘리트가 지도하고(village-elite-led) 조직이 엄밀하며(organized) 활동이 비밀스러운(secretive) 大刀會는 엘리트 지주 역량이 강대하고 촌락 공동체 조직이 강건한 산동 서남부의 사회구조를 일정부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산동 서남부의 신권은 집단적 降神附體 의식(mass possession ritual)을 거행하고 공개적으로 연습하고 쉽게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리더의 재생산이 용이하며 그 리더가 공동체 밖의 외부인(outsider)이라 할지라도 쉽게 수용하였다. 이는 산동 서북부의 사회가 상대적으로 차별이 없고(undifferentiated society) 촌락이 개방적인(open villages) 특징을 반영한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사회 환경은 새로운 조직의 興起에 유리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채택한 형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신권은 산동 서남부처럼 강대한 엘리트 지주가 있는 곳에서는 출현할 수 없었다. 산동반도와 산동 북부는 제국주의 세력의 침투가 두드러졌으나 신권, 대도회 모두 출현할 수 없었다. 이들 지역은 尙武의 하급 문화(martial subculture)가 약하고 엘리트 세력이 강대하였으며, 盜匪가 지방 자위무장(defence force)의 건립을 촉진시킬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다. 자연재해도 적고 경제도 다양하여 농민을 엄중한 생존위기로 모는 경우도 적었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사회운동의 방식(option)을 제한하였던 것이다.”¹⁷⁾

필자는 清末 山東의 民間宗教結社와 拳會(boxer)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민간종교결사와 권회를 단순히 반란 혹은 폭동의 주체로만 강조하고 있다면 필자는 이들을 지역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민간종교결사, 기독교회, 권회 세 집단의 위상을 검토하였다.

淸初 산동 서부에서 유행한 대표적 민간종교결사 八卦敎(Eight Trigram Sect)는 청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었지만, 청대 중기의 계속되는 邪教 안건과 연관되면서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861~1863년 반란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종교적 권위를 갖는 지도부의 존재가 무너진 데 있었다. 八卦敎의 특권 가계인 劉氏 一家는 몇 차례의 邪教 안건으로 발각되어 처형되었고, 이들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등장한 집단도 반란으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이 시기를 기점으로 淸朝 당국이 산동 서부에서 捻軍을 비롯한 각종 저항 세력을 일단 약화시킨 데 성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八卦敎가 쇠락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기독교민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민은 민간종교결사(혹은 권회)와 마찬가지로 지역민이 선택한 代案(alternative)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기독교회는 1860년의 北京條約으로 중국 전역에서 포교가 합법화된 이후 세력을 확대해갔다. 순수한 종교적 입장에서 民間宗教(예컨대, 白蓮敎)와 기독교는 救濟 신앙 뿐 아니라 의식과 조직 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기

15) 路遙(1990), 83-102쪽.

16) 路遙, 程驥, 『義和團運動史研究』, 濟南: 齊魯書社, 1988, 169-20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세릭은 증문판 서문에서 梅花拳과 民間宗教의 관계, 民間宗教와 降神附體 곧 神拳의 관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美) 周錫瑞 著, 張俊義·王棟 譯, 『義和團運動의起源』,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1995 第1版, 中文版前言.

17) Joseph W. Esherick(1987), pp.318-319.

독교민이 될 경우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민간종교의 성원이 받는 정치적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실제로 기독교민의 세력이 확산되면서 민간종교의 성원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고, 교회 역시 종교적 박해를 받는 민간종교의 성원을 개종하는 데 노력하였다. 八卦敎의 쇠퇴 시기는 바로 기독교민(교회)의 형성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당시 산둥에서 활동한 선교사의 자료를 보면 많은 민간종교의 성원이 새로운 代案을 찾아 교회에 귀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拳會는 清代 中期에 민간종교결사의 외곽에서 종교의 확산과 전파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游民無賴로 구성된 약탈 조직이어서 일반 향촌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명분을 갖지는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쇠퇴한 민간종교결사를 대신하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 盜匪 발호와 治安의 공백이라는 시대 상황 둘째, ‘自衛保家’를 위해 무술을 익힌다는 명분 셋째, 이들을 이끄는 지도부의 등장으로 가능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산둥 서부에서 급속히 확산된 大刀會는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권위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기독교민(교회)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기독교민은 필요한 경우 교회를 찾았고, 非교민은 권회에 도움을 구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清末 산둥 서부에서 기독교회와 권회는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사회 세력으로, 19세기 말 산둥 서부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반기독교운동은 대부분 양측 간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표출된 결과라고 하였다.¹⁸⁾

앞의 두 저작이 산둥 서부에 주목한 연구라면, 독일학자 티데만(R.G.Tiedemann)은 산둥 남부를 중심으로 의화단운동 전야 기독교 전파(christian mission)와 사회적 충돌(social conflict)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中文 자료 뿐 아니라 천주교 聖言會(Society of the Divine Word) 및 예수회(Jesuits) 자료, 선교사의 일기와 저작, 천주교 조직 및 선교사와 敎廷, 모국 정부 간의 왕래 서신 등의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의화단의 기원, 사회구조, 선교사와 제국주의 관계, 大刀會의 활동을 분석하였다.¹⁹⁾

일반적으로 의화단운동의 기원과 그 反敎 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관에 국한되어 주로 외재적 요소에 주목하지만, 티데만은 의화단운동이 발생한 화북 평원의 내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지역 환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 선교사와 기독교민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진행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저서에서는 山東省과 인근 省의 인접 지역을 ‘山東區(shandong area)’로 지칭하고 특히 산둥 남부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산둥 남부는 兗州, 曹州와 沂州, 濟寧直豫州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1885~1898년 이 지역과 천주교 魯南(산둥 남부)代牧區의 관할 범위는 대략 일치한다.

티데만은 우선, 패리(Elizabeth J. Perry)의 ‘환경 생태학’ 방법론으로 폭력의 잠재 지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폭력은 가혹한 생존환경에서 조성되는데 늘어나는 인구, 감소하는 경지 면적, 빈번한 자연재해 등 장기적 요인으로 가속화되었다. 그는 산둥 남부의 폭력 문화를 계파 투쟁(詞訟, 향촌사회의 武裝化, 水利 충돌, 土地 충돌 등의 형식으로 표현), 盜匪, 民間宗教 폭력, 선교사와 反敎 폭력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²⁰⁾

흥미로운 사실은 19세기 최후 10년 간 기독교선교사는 산둥 남부에서 거대한 성공을 거

18) 이은자, 『義和團運動 前後의 山東-民間宗教結社와 拳會에 관한 연구』, 고려대출판사, 2002.

19) (德) 狄德滿 著, 崔華杰 譯, 『華北의暴力和恐慌-義和團運動前夕基督教傳播和社會衝突』,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11(R.G.Tiedemann, *Violence and Fear in North China: Christian Missions and Social Conflict on the Eve of the Boxer Uprising*(Chinese Edition), 2011).

20) (德) 狄德滿 著, 崔華杰 譯(2011), 導論, 1-9쪽.

두었다는 점이다. 폭력이 일상화된 이 지역에서 선교사는 추종자를 흡수하였다. 자원 경쟁이 치열한 환경 하에서 기독교가 제공한 정치적 이익은 특별한 흡인력을 가졌다. 기독교 세력은 폭력 문화에 익숙한 이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 자원 경쟁을 둘러싼 쟁탈에 가담하였다. 기독교도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선교사의 특권을 이용하였다. 지역의 약체 세력은 불리한 위치를 바꾸기 위해 선교사와의 연맹도 꺼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盜匪가 집중 거주하는 촌락은 체포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촌락 전체가 기독교로 귀의하였다. 이러한 집단 귀의 현상은 산둥 남부의 曹州 등지에서 출현하였다.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 귀의는 흡인력 있는 생존 전략의 하나였다.²¹⁾

특히 1876~1878년 재난성의 화북 大饑荒 이후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1890년 이후 장기적인 旱災은 엄중한 위기를 가져왔다. 이 불안한 변화와 동란의 시기에 謠言(rumor)이 생산되고 그에 따른 恐怖(rumor panic)가 만연되었다. 과거 민중은 자연 재해를 하늘이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이제 그 원인을 기독교, 서양인에게 돌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화북 지역에 의화단이 성행할 시 산둥 남부와 江蘇 북부에서 의화단의 영향은 미약하였다. 원래 산둥 남부의 大刀會는 청일전쟁 기간 盜匪 방법을 위한 촌락의 자위조직이었으나 이후 反教 운동에 나서게 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대도회는 전체적으로 의화단의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지역의 反教 투쟁은 지방 관원 혹은 지역 불만자의 책동으로 이루어졌다.

1890년대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된 전통적인 경쟁과 폭력의 패턴은 산둥 남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反教 소동은 조그만 일이었다고 1900년 후 명확히 종식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 당국이 기독교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의화단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전통적 폭력 문화는 의연히 유지되었다.²²⁾

이상에서 티데만은 의화단운동의 폭발을 외재적 요소가 아니라 내재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였다. 그는 화북 평원의 자원 확보를 둘러싼 폭력 문화를 지적하고 反教의 폭력 행위 역시 이러한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산둥 남부 대도회의 反教 활동 역시 지역 전통의 경쟁성 폭력 활동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었다.²³⁾

티데만은 또 다른 논문에서 화북 평원의 教會軍(church militant)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의화단운동 시기 기독교민이 수난 받는 박해와 손실만을 언급하고 있는데, 화북의 적지 않은 향촌 지구에서 기독교민은 무장을 갖추고 의화단의 폭력에 대응하였다. 1900년 봄과 여름 의화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기독교회와 교민은 상당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입었으나 화북 평원, 山西 남부, 내몽고의 일부 교회군은 성공적으로 의화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²⁴⁾ 그는 教會軍의 사례 역시 기독교회(교민)가 화북 평원의 집체 폭력 전통에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로 해석하였다.

해리슨(Henrietta Harrison)은 山東이 아닌 山西의 의화단운동에 주목하여 폭력 행위의 근원과 패턴을 연구하였다. 의화단운동 기간의 폭력이 주로 촌락 내부(within villages)의

21) (德) 狄德滿 著, 崔華杰 譯(2011), 153-202쪽.

22) (德) 狄德滿 著, 崔華杰 譯(2011), 413-422쪽.

23) 路遙는 의화단의 기원에 대한 탐색, 사회 구조 분석, 기독교 선교 확장과 제국주의 폭력, 대도회 활동 등과 관련한 티데만의 연구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大刀會의 反教 투쟁을 단순히 자원 쟁탈을 둘러싼 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역 전통의 경쟁적 폭력 행위의 일부로 간주한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路遙, 「序言」, (德) 狄德滿 著, 崔華杰 譯(2011).

24) R.G. Tiedemann, "The Church Militant: Armed Conflicts between Christians and Boxers in North China".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The Boxers, China, and the Worl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7, pp.17-41.

기독교도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해리슨은 山西 중부의 경우 촌락 간(intervillage)의 폭력 투쟁임에 주목하였다. 한 촌락의 의화단은 다른 촌락의 기독교도를 공격하였다. 다른 촌락의 리더는 의화단이 촌락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촌락의 자위군(village militia)을 무장시키고 촌락 주위에 방어벽(wall)을 세웠다. 더 나아가 의화단에 대항하기 위해 또 다른 촌락과 연합하였다. 이러한 폭력의 방식은 이전부터 존재하는 '촌락 간의 권력 구조'(intervillage power structure)를 반영하는데, 권력 구조의 중심에는 晉河의 灌溉 체계(Jin River irrigation system)가 있었다. 환언하자면, 의화단의 폭력 행위는 기독교민과의 충돌 뿐 만이 아니라 촌락 간 권력 구조에서 우세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이 경우 촌락 간 권력 구조는 灌溉 체계에 의해 좌우되었다.²⁵⁾

이런 점에서 해리슨의 관점은 앞서 티데만의 논점과 유사하다. 티데만이 산둥 남부에서 기독교민으로의 귀의를 자원 확보를 위한 생존 전략의 하나로 인식한 것처럼, 해리슨은 山西에서 발생한 의화단 폭력이 촌락에 의해 행해지는 경제적 통제권(economic control) 확보를 위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2.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적응인가? 충돌인가?

근대 중국에 전파된 기독교는 중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많은 선교사는 이 충돌을 박해로 간주하고, 대다수 중국의 엘리트는 그것을 自衛 혹은 反擊으로 이해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 엘리트는 反기독교적이며 일반 중국인도 기독교를 싫어하였다.

프랑스학자 바스티드 브루키에르(Marianne Bastid-Bruguère)는 기존의 논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프랑스 외무성 자료(archives), 파리 遣使會(Lazarist) 자료 등을 中文 자료와 비교하여 直隸 西南代牧區 소속 正定府 기독교도(가톨릭교도)의 基層團體(말단조직) 상황을 분석하였다.²⁶⁾ 1898년 말 의화단이 直隸에 출현했을 때 正定府 代牧區에는 32,262명의 교민이 있었다. 이 지역의 인구는 800만 명이었다. 신도수는 北京 다음이고 遣使會 代牧區 중 제3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천주교 代牧區 중 제5위였다. 1900년 의화단 폭력으로 直隸 東南代牧區에서 수천 명의 기독교도가 살해된 것과 비교하여, 正定府 대목구에서는 150명만이 조난을 당했다. 저자는 正定府의 예외적인 상황을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였다.

正定府에서 기독교 기층단체의 교도는 비교적 빈한하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그렇다고 기독교민이 최하 빈곤층은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 小農, 수공업자, 店主가 많았지만, 과거 급제자로 功名을 얻은 자도 있었다. 산둥 서부와 달리 이들 교민은 민간종교 성원과 어떤 관련도 없었다. 이 지역의 외국인 선교사는 10명 정도, 중국인 선교사를 포함해도 20명이 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선교사가 교민의 법률적 분쟁에 개입 혹은 후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외국선교사는 교회 밖의 지방당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포교와 자선 사업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교도의 소질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공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교회는

25) Henrietta Harrison, "Village Politics and National Politics: the Boxer Movement in Central Shanxi",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pp.1-15.

26) (法) 바스티, 「義和團運動期間直隸省의天主教教民」, 『歷史研究』 2001年 第1期(같은 논문이 일본 어로도 번역되었다, 『中國 21』(愛知大學現代中國學會 編) Vol. 13, 2002, 123-156쪽 참고)

신앙의 진과 및 자선 구제의 실행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프랑스에서 원조된 자금(매년 1만 프랑)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투입하였다. 기독교 재원의 증가는 지역사회에 유익한 것이었다. 헌신적인 수녀들의 활약으로 육영당, 고아원, 봉제공장, 학교, 진료소 등이 만들어졌다. 기독교가 현지 사회에 적응하면서 교회 건축에 중국인 기술자가 참여하고 기독교학교에도 중국인 여아 등이 수용되었다.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우호적 관계로 의화단운동 시기에도 正定府는 타 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당시 正定府의 주민 중에서 스스로 의화단 권술을 익히는 자는 거의 없었다. 현지 주민이 의화단 폭력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발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의화단운동 이후 입교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1903년 대목구의 청년 세례자수가 처음으로 1천 명을 초과하였고 1906년 7월 기독교도는 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기독교도 뿐 아니라 非교도의 요구로 교육, 위생, 자선 구제 사업은 계속 발전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저자는 正定府의 의화단운동을 反帝 운동으로 칭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현지 주민이 의화단에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긴급한 상황 하에서의 자위적 반응에 속한다. 물론 正定府 대목구의 상황이 예외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사례에서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융합,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⁷⁾

미국학자 스위튼(Alan Richard Sweeten)은 江西省을 연구 대상으로 教案(反기독교 사건)이라는 중국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고 빈번히 발생한 사건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도시가 아니라 향촌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사건에 주목하여 중국 향촌에서 기독교의 생존, 발전과 충돌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江西省에 주목한 이유는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오래되고 선교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이유 외에, 이곳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遣使會(Lazarist) 신부와 仁愛會修女(Sisters of Charity)의 선교 사업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스위튼은 이에 더하여 清代 總理衙門과 지방관원이 教案에 대해 처리한 보고서를 모은 1차 자료 『教務教案檔』를 활용하여 江西省에서 발생한 반기독교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²⁸⁾

우선 江西省 향촌 교회의 배경, 구성-선교사와 중국인신부, 傳道師(catechists)와 教頭(lay leader), 기독교 입교, 기독교도의 사회경제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1842년 江西省에는 7,110명의 교도와 160개의 지방 교회가 있었는데, 교도의 절대 다수는 향촌 혹은 屯集鎮에 거주하였다. 최대의 지방 교회는 九道村으로 대략 400명의 교도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200명, 가장 적게는 한 가정 4~5명이 교민뿐인 곳도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교민을 지도했던 사람은 선교사가 아니라 전도사와 지방 教頭였고, 기독교도는 일반 중국인과 마찬가지로 각기 생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山東의 경우와 다르게 江西에서는 전체 촌락 구성원이 기독교로 귀의한 사례가 아주 적었다. 기독교도는 보통 빈한한 계층으로 自耕農, 수공업자, 천업 종사자 등 모든 계층을 망라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범죄 집단은 아니었다.²⁹⁾

스위튼은 구체적으로 『教務教案檔』을 중심으로 향촌 교회의 건축, 기독교도와 종족 및 가정의 관계, 부동산 분규, 교도와 지방 治安 등의 측면에서 기독교도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27) (法) 바스티(2001), 43-45쪽. 바스티드 브루귀에르의 연구에 대해 중국학자는 실제로 기독교도의素質,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直隸 西南代牧區는 直隸北代牧區와 큰 차이가 없었고, 따라서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陳方中, 「義和團運動中的天主教教徒—直隸西南與直隸北兩區比較」, 『義和團運動110周年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675-677쪽.

28) Alan Richard Sweeten, *Christianity in Rural China: Conflict and Accommodation in Jiangxi Province, 1860-1900*. Center for Chinese Studi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1. 필자는 원서를 구입하지 못해 중역본을 활용하였다. (美) 史維東·吳薇 譯, 『中國鄉村的基督教: 1860-1900年江西省的衝突和適應』,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13. 1-19쪽.

29) (美) 史維東·吳薇 譯(2013), 20-47쪽.

분석하였다. 그 결론은 도시에서 발생한 反기독교 사건(예컨대 南昌教案)과 달리, 江西省 향촌 사회의 무대에서 反기독교 충돌은 거의 대부분 일반 향촌민과 일상생활 속에서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反기독교 사건의 절대 다수는 기독교 본래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인 혹은 가정 분규, 빈곤 및 일상의 소외 등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였다.

저자는 향촌의 기독교도가 지역사회와 화해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九道(村)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 지역은 의화단운동 전야 40년 간 1건의 民教 충돌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지의 선교사 역시 종교적 대립을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九道에서도 지역 축제(迎神賽會) 참여와 비용 부담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측이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으나 중국 관청의 개입으로 최종적으로 화해에 성공하였다.

교회는 육영당에 관심이 많았다. 江西 향촌에서 최초의 육영당은 九道에 세워졌다. 육영당에서 양육되는 아이는 교도 뿐 아니라 非교도도 포함되었다. 선교사는 육영당의 여아에게 종교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장래 건교한 신앙의 기초로 삼았다. 교회학교에도 기독교도 뿐 아니라 여유가 되면 非기독교도도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³⁰⁾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기존의 民教(non-Christians and Christians) 충돌과 다른 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直隸에서도 의화단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지만 正定府 代牧區의 경우 천주교와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돌이 적었다. 1860년 기독교 선교가 합법화된 이후 1900년까지 江西省 향촌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였다. 기독교의 적응이 江西省의 특수한 상황인지 여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단순히 배적 혹은 충돌로만 해석할 수 없음은 사실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지역의 관점’에서 의화단운동의 다양한 양상, 기독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중국의 화북 평원에서 발생한 지역적 사건이었던 의화단운동은 무엇보다 국내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辛丑條約(Boxer Protocol)은 가혹한 불평등조약이었다. 의화단 사건은 1898년의 개혁을 되돌린 보수적 정책(conservative police)을 철저하게 불신하도록 했다. 청조의 최후 10년은 科擧 제도 폐지, 신식학당 건립, 행정과 군사 근대화, 상공업 발전, 君主立憲과 地方自治의 점진적 이행 등을 포함하는 격렬한 개혁의 시기였다. 그러나 만주족의 청조는 1911년 혁명으로 260여 년의 통치를 끝냈다.

의화단운동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서 언급한 티데만, 비커(Robert Bickers)가 편집인으로 참여한 저서의 제목(The Boxers, China, and the World)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에는 2001년 영국 런던대학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 10편이 수록되어있다. 이미 본론에서 이 저서에 포함된 티데만, 해리슨의 논문을 소개하였지만, 편집자의 1인 비커는 序文에서 의화단운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지적하였다.

의화단은 종종 중국의 전통 세력이 강제적인 근대성(enforced modernity)에 저항한 사건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이 저서는 이러한 기존의 논의를 거부하고 의화단을 광활한 세계무대 위에 올려놓고 동시대의 反植民 조류와 연관시켰다. 의화단 전쟁(Boxer War)은

30) (美) 史維東·吳薇 譯(2013), 189-210쪽.

세계화된 권력(globalizing power)에 대항하는 전적으로 근대적인 사건(wholly modern episode)이고 근대적인 저항(wholly modern resistance)으로, 근대 중국과 국제적 관계에서 새로운 주세를 체현하였다. 그러면서도 의화단은 또한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있는 지역적 사건(local episodes)으로 중국의 전통 문화, 권력 구조 등과 연관되었다.³¹⁾

이 논문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의화단운동의 지역적 특색, 의화단 전쟁 후 八國聯軍(Eight Power)의 약탈을 둘러싼 도덕적 논쟁과 열강 점령 하의 天津(Tianjin under foreign occupation), 그리고 의화단운동의 跨國(transnational) 영향에 관한 것이다. 이 중 의화단운동의 跨國 영향에 관한 논문은 3편이다.

우선, 영국학자 오토(T.G. Otte)는 의화단 사건이 청조 역사의 분수령일 뿐 아니라 동시에 세기 교체기 영국 외교 정책의 분수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에 영국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고립주의'(isolation) 외교정책을 유지하였다. 1900년 5월의 시점에서도 영국 정부는 의화단의 排外 운동을 소규모의 영세한 지역적 군중 운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00년 6월 北京의 외교 공관이 의화단의 공격을 받고 청조가 전쟁을 선포하자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포기하고 독일, 러시아, 일본과 결맹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국의 고립주의 외교 정책의 변화는 의화단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³²⁾

인도사 전문가 베일리(C. A. Bayly)는 의화단운동 시기 인도 엘리트 계층의 반응을 검토하였다. 의화단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의 매체는 의화단을 식민지 인민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대운동의 전형으로 규정하고, 열강에 대한 비판과 중국에 대한 동정, 지지를 표현하였다. 이들은 인도의 세포이 전쟁과 의화단운동을 연관시키는 평론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의화단에 의해 北京 공사관이 포위되자 문명과 야만의 담론이 형성되었다. 인도의 민족주의자는 식민통치에 반항하는 투쟁을 고취하면서도, 의화단의 '야만' 행위와 폭력의 형식으로 표출되는 종교적 광풍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다.³³⁾

오토의 연구가 인도 엘리트 계층의 반응을 연구한 것이라면, 미국학자 양(Anand A. Yang)은 인도 병사가 남긴 회고록에 관심을 가졌다. 영국군에 고용되어 의화단 전쟁에 참여한 인도 사병 싱거(Gadhadhar Singh)는 중국에서 13개월의 체험을 회고록으로 남겼다. 싱거는 인도 서발턴(Indian Subaltern)으로 영국 식민자의 중국 식민 과정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였다. 싱거는 열강의 약탈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인도의 엘리트 계층과 마찬가지로 중국 인민의 투쟁에는 동정을 표시했지만 의화단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싱거의 중국 경험은 그가 협력하였던 제국과 문명에 대한 서발턴적 정서(subaltern sentiments)를 발전시키고, 인도와 중국(그리고 나머지 아시아까지도) 간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유대가 싹트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³⁴⁾

위의 저서는 의화단운동의 跨國 영향으로 인도,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였지만, 의화단운동은 동아시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八國聯軍을 가장 많이 파견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³⁵⁾ 의화단의 여파로 한국에서도 東學에 의해 기독교 및 서

31) Robert Bickers, "Introduction",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pp.xi-xx.

32) T.G. Otte, "The Boxer Uprising and British Foreign Policy: the End of Isolation",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pp.157-177.

33) C.A. Bayly, "The Boxer Uprising and India: Globalizing Myths",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pp.147-155.

34) Anand A. Yang, "(A) subaltern('s) Boxers: An Indian Soldier's Account of China and the World in 1900-1901",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pp.43-64.

양인 배척운동이 발생했음을 지적한 논문도 흥미롭다.³⁶⁾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의화단운동은 지역적 사건이면서도 정치적 맥락(context)은 중국 국내정치 추세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충격(impact)은 글로벌하였다. 의화단운동의 구조(fabric)에는 '로컬적인 것, 내셔널적인 것, 국제적인 것'(the local,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이 모두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³⁷⁾

35) 小林一美, 『義和團戦争と明治國家』 東京: 汲古書院, 1986; 조명철, 「의화단 사건과 일본의 외교 전략: 만주문제와 한국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8, 1998; 조명철, 「의화단 사건과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일본의 외교 전략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9, 2002; 현광호, 「의화단 사건 이후 일본의 대한 정책」, 『호서사학』 45, 2006; 차경애, 「의화단운동 진압전쟁이 한국의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 『중국근현대사연구』 23, 2004; 차경애, 「의화단운동 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명청사연구』 24, 2005.

36) 이혜원, 「의화단운동이 한국 개신교 선교현장에 미친 영향」, 『한국기독교의 역사』 33, 2010.

37) Robert Bickers, "Introduction", Edited by Robert Bickers and R.G. Tiedemann, p.xii.

소농, 필리핀인, 투사로서의 농민의 초상

버나드 카르가닐라(필리핀-마닐라대학교)

노동 해방

농민이라고 해서 모두 소농은 아니다. “농민”은 땅을 경작하여 곡식, 과일, 채소 그리고 여타의 비-동물 생명체를 생산하여 양식으로 삼는 재배자, “하나의 농장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개인”이며, “본래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농사를 짓는 마름 혹은 관리인을 뜻하는 말이였다.” 반면 “소농은 (주로 역사적 용법에서 혹은 빈곤 국가의 역사적 자급농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난한 소규모 자작농 혹은 농업 노동자”이다.

[<http://www.oxforddictionaries.com/us/definition/english/peasant>]

따라서 저 핵심어들(“가난한”, 작은 구획의 토지 보유자, 특히 농업 분야의 노동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은 정원사, 사냥꾼, 채집업자, 목축업자 및 산업 노동자(공장노동자), 어부(어업 노동자), 기능공(도축업자, 제빵사, 양초 제조업자), 대금업자(고리대금업자, 농촌 은행가)와 그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농은 그와 동료 농민과 마찬가지로, 땅에 긴박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동료 경작자(농장주, 신사-농민, 조정사, 농업과학자)처럼 형편이 좋지는 않으며, 그의 직업은 무지, 빈곤 그리고 교양의 결여(촌놈(yokel), 무지렁이(bumpkin), 촌놈(hick), 시골뜨기(rube), 산골 사람(hillbilly))를 함축한다.

필리핀의 소농은 차지농, 소작인, 쌀경작자이다. 그는 “막사사카(magsasaka),” “막부부키드(magbubukid)” 그리고 “페산테(pesante)”로 불린다.

그는 토종 종자와 여타의 전통적인 품종, 관개수, 비료, 살충제를 이용하여 땅을 일구었고, 곤경의 시기에는 피와 눈물을 더하여 일구었다. 그의 유전 되어 온 적들(메뚜기와 여타의 해충들, 홍수와 가뭄, 지대와 세금, 고리대와 채무, 토지 횡령인, 군벌, 미곡 카르텔, 중국인 중개상, 엘리트 아센데로스(hacenderos) 또는 플랜테이션 소유자 그리고 탐욕스런 제분업자, 지하디스트(jihadist), 노상강도)이 이제는 농촌 생산에 손대는 명칭한 기술관료들과 정신 나간 유전학자들, 무지막지한 기업식 영농 그리고 상업적 전지구화를 통해 덤핑되는 규제되지 않는 해외 수출과 합세했다.

스페인의 캄페시노(*campesino*)나 인도의 라이어트(*ryot*)와 유사한 필리핀의 소농은, 한 뼘 대지를 보살피는 것을 그의 신성한 의무라고 믿으며, “꾸무노이 응 카히라판(Kumunoy ng Kahirapan)”(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으며, 게다가 비참한 자리에 계속 처해 있게 될 것이다. [Burton T. Onate, “Vision Of the Filipino Farmer: Vision for the Academe“]. 요컨대, “빠이사노(*paisano*)”는 보수적이고, 쉬이 불복종과 문란한 행동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운산(원뿔과 꼭 같은 모양을 유명한 필리핀의 화산)과 같이 끈질긴 시골풍의 폭발들이 있기 전에 힘겹고 지독한 고뇌를 호되게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것의 정형은 그 명성을 담고 있는 소설에 등장하는 필리핀의 민족적 영웅에 의해 하나하나 잘 포착되어 있다.

까베상 테일즈는 “처음에는 한 자본가의 토지에서 공동으로 일했었는데, 그는 그의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의 도움을 받아 독립하여 일하기로 하고, 후일에는 2마리의 물

소(carabaos)와 수백 페소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촌락의 경계에 있던,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굵은 나무들을 베어낸 다음 깨끗이 치웠다. 땅을 정리하여 새로 생긴 땅을 일구는 동안 식구 모두가 말라리아에 걸렸고, 꽃다운 나이의 장녀인 루시아와 더불어 그 엄마도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을 무렵, 이웃 촌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종교 단체가 그들이 일군 땅이 자신들의 경계 안쪽에 속하다고 단정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즉시 자신들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수도회의 책임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소액-거우 20 또는 30페소-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테일즈 가족에게 그 토지의 용익권을 주었다. 더없이 온화한 사람인 테일즈는 여느 사람들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보다 더 수도사들에게 고분고분했던 만큼 소송을 거는 것에 반대했다.....”

“지대가 200페소로 오르자, 테일즈는 머리를 굽적이고 한숨을 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투덜거리며 항의했다. 이때 수도-책임자는 만일 지대를 낼 수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땅을 부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수도사들이 일종의 부동산 증서 같은 것을 제시하여 그들의 주장의 적법성을 먼저 증명하지 않는 한 지대를 내지 않거나 그의 땅에서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들에겐 그런 증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뒤따랐고, 까베상 테일즈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부는 정의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할 거라고 믿으며, 소송에 돌입했다.”

“당시 필리핀의 하늘 아래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그런 투쟁이 목격되었다. 무지하고 고독하며, 그의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믿는, 정의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강력한 단체를 상대로 싸우는 가난한 인디오의 투쟁.....” [Chapter4. *The Reign of Greed: Complete English Version of El Filibusterismo from the Spanish of José Rizal. Translated By Charles Derbyshire. Manila: Philippine Education Company, 1912*]

신을 두려워하고 법을 준수하며 근면한 필리핀의 소농은 벼랑 끝에 몰렸지만, 무법자는 반란적이지 않고 한층 더 혁명적이다. 그는 다른 불의의 희생자들과 함께하기에 홀로 싸우지 않는다. (1) 프란치스코 센드리야스 다고호이(Francisco Sendrijas Dagohoy). 고향 마을의 예수회 보좌신부는 그의 형제(기독교도의 의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죽은 순경)에게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지 않겠다고 했다. (2) 후안 데 라 크루즈 빨라리스(Juan de la Cruz Palaris), 그의 촌락인 팡가시난 주(州)의 비나라통안(Binalatongan)에서 쌀 수확물의 형태로 힘겨운 식민적 공물을 거두는 스페인의 징수에 대한 저항을 조직했다. 또 (3) 사라로고 암바리스토(Saralogo Ambaristo)는 빠딕 촌락에 있는 에스탕고(estango, 국영 상점) 경비대원의 손에 그의 아내가 죽임을 당한 것을 비통해했다.

이들 전원지대에서의 반-스페인 봉기들의 기폭제들이 개인들에 대한 범죄이긴 했어도, 그것들을 지속시켰던 요인들은 과도한 세금 징수와 강제 노동에 대한 항의였다. (필리핀 역사상 가장 길었던) 다고호이의 봉기는 상당했던 종족집단인 비사얀(Visayan)에게 85년간의 자결권을 부여했던 “보호의 독립” (필리핀 군도의 주요한 섬)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민중 전쟁의 모델을 남겼다. 1762년 빨라리스의 봉기의 승리는 그것이 영국의 필리핀을 침공하여 스페인이 패배하고 있던 전-나폴레옹 시대의 7년 전쟁 동안 일어났기에 가능했다. 1807년의 암바리스토 봉기는 일로카노스(북부 루존의 필리핀인)가 전통의 사탕수수주를 만들어 소비하는 것을 금지하여 와인 독점을 유지하려던 스페인의 시도에 의해 촉발되었다.

빨라리스 봉기는 광가시안 주의 역사에서 독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봉기는 루존 주 북부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 의해 일어난 최초의 대중 무장 행동이었던 것이다 [Cielo G. Reyno, "The Palaris Revolt of 1762," National Historic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April 1, 2013; <http://nhcp.gov.ph/the-palaris-revolt-of-1762>]. 외국인들의 이윤 추구욕은 필리핀 북부의 또다른 집단을 치명적인 지역적 대결로 몰아갔다. "19세의 수많은 일로까노에게 농사는 주요한 자원이었고, 사탕수수 그 주요 생산물 가운데 하나였다. 사탕수수 추출물은 당밀로 전환되었고 또 바시(basi)와 수카(suka) (식초)로 발효되었다. 이것이 바시 산업이 이문을 많이 보는 산업인 이유였다." 따라서, (스페인인들의) 바시 독점은 일로까노에게 이중의 위협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시와 수카 (식초) 모두를 경쟁 상인과 생산자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Jayson Lorenzo Antonio, "Revisiting the Basi Revolt of 1807 (Piddig, Ilocos Norte, Phillippines): its Historical and Axiological Relevance," Asi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Volume III, Issue 2, 2013]

개략적으로 말하면, 다고호이-빨라리스-암바리스토 봉기는 예증한다. (1) 투쟁하는 필리핀의 원주민 종족 집단들을 자유로이 진화하던 전-스페인적 상황으로 돌려놓는 모든 반-스페인 봉기의 잠재력과 속도. (2) 반-식민 운동의 성공을 위한 대중 참여의 불가결성. 그리고 (3) 외국인의 착취에 대한 폭력적인 전원지대의 반응의 물질적 기반으로서 경제의 원시적 본성.

게다가, 원주민 필리핀인과 외래의 식민지배자들 사이의 각각의 적대적 모순은 하나의 발전의 패턴, 양적 저항이 서서히 권력 균형에서의 질적 변화로 전개되는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1896년 필리핀 혁명에 앞선 모든 봉기를 진압하면서, 스페인 식민주의자는 수많은 소농을 징병하여 그들의 형제들에 맞서 싸우게 했다. 따라서 군사 징집은 봉기의 전개가 급격하고 광범위해지면서 주요한 억압의 형식이 되었다." [Amando Guerrero, Philippine Society and Revolution, Originally Published in Mimeograph by the Revolutionary School of Mao Tsetung Thought, Circa 1970. p.7]

국제적 내전들

스페인 지배에 대한 원주민 저항의 질적인 변화는 Kataas-taasan, Kagalang-galangang Katipunan ng mgá Anak ng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하링바양 카타갈루간 Haringbayang Katagalugan(이 단어는 "super-town"이라는 관념을 나타내는 것인데, 즉 필리핀 군도의 주민들의 집합체로서의 민족이라는 개념)의 개념화에 도움을 주었다. K.K.K.A.N.B.(약어 KKK)는 올바른 매너와 행실, 복지와 위생, 민족정신과 의회 등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민족의 일원이 될 준비를 하는 조합/정당/단체였다.

그러나 이후 스페인 식민주의에 대항한 KKK의 해방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필리핀을 침입할 미국인들에게, 카피푸난(Katipunan)은 "노골적으로 수도사들의 추출"하고 "스페인인들을 학살"하고자하는 "무식한 계급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비밀 조직"이었다. 이들이 행하는 폭력은 "미천한 계급들 대한 교육받은 필리핀인들의 선동의 결과였다. 그 조직은 어부들과 소농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 교단들이 영지를 가지고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들을 소작료로 징수하던 지방들에서는 수도사들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David P. Barrows, A History of the Philippines. NY: American Book Company, 1905, p. 135]

1896년 필리핀 혁명의 의의는 21세기 미국인들도 아직 간직하고 있다:

“라살(Razal)이 처형된 바로 그 해에, 안드레아스 보니파시오(Andreas Bonifacio)는 카티푸난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을 결성했다. 스페인 당국은 그들의 존재를 발견하자마자, 재빠르게 그 운동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경찰은 그들을 일제 검거하고 카티푸난의 멤버로 의심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투옥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처형하였다. 카티푸난의 와해를 막고자 보니파시오는 1896년 8월 29일 스페인에 전쟁을 선포하였고 루손의 고립된 스페인 요새를 공격함으로써 필리핀 반란을 시작하였다.” [Frank L. Andrews, B.S.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The Philippine Insurrection (1899-1902): Development Of The U.S. Army’s Counterinsurgency Policy,” A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Faculty of the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degree of Master of Arts in Liberal Arts, August 2002, pp. 15-16]

필리핀 인민들의 혁명전쟁(이 전쟁은 첫 번째, 하팅바양 카타갈루간 공화국의 탄생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으로부터 이 새로운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행된 것인데)은 1870년부터 1913년 동안 세계를 뒤흔든 일련의 공격적/방어적인 전쟁들의 중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다. 세르비아인들과 루마니아인들의 전쟁처럼 필리핀-스페인 전쟁은 민족 해방의 문제였다. 즉, 발칸의 인민들과 오토만 제국의 대결처럼 루손, 비사야스와 민다나오의 원주민들과 쇠퇴하고 있던 마드리드의 스페인 왕가와 팽창주의적 윌스트리트 제국 사이의 대결이었다: “불가리아 농민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이 전쟁에 바쳤다. 그들은 진정 민족 해방을 위해 싸웠다. 터키인들에 의한 전대미문의 탄압은 강력한 민족 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경제적 문화적 종속은 특히 종교적인 사안들에 대해 가해진 탄압에 의해 더욱 가중되었다.”

“인민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수행한 전쟁들은 자위를 위한 정당한 전쟁들이다.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제국주의 전쟁들은 침략을 위한 정당하지 못한 전쟁들이다.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전쟁들은 전리품으로서 노예들을 분할 혹은 재분할하기 위한 전쟁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전쟁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어떤 쪽도 ‘정당한 방어전’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비록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전쟁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하지만, 그들은 지금 필리핀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1900년과 1901년 사이 필리핀들의 봉기는 간헐적으로 일어났으며 그 봉기들은 미국인들에 의해 유혈진압 되었다. [Gregory Zinoviev, “Wars - Defensive and Aggressive,” 04 August 1916]

1896년 아비시니안들과 1899년 보어 공화국의 전쟁을 놓고 보면, 이들의 존경스러운 성전(crusade)들은 이탈리아와 영국의 제국주의에 대항한 정당하고 적극적인 전쟁들이었다.

1870년과 191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특수한 충돌들은 이후 이어질 두 번째 일련의 전쟁들의 전조가 되었다.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위기와 회복: 1차 대전과 대공황 그리고 파시즘의 도래 말이다. 필리핀인들에게 있어서 20세기의 첫 10년은 앵글로-색슨 제국주의에 맞선 자위의 시대였다. 1899년과 1913년 사이에 실제 전투가 일어났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조합주의가 뒤를 이었으며, 시민의 자유들을 위한 정치적-합법적 소요가 있었고, 1941년까지 모든 방식의 농민 봉기가 잇달았다. 따라서 1899년과 1941년의 기간은 미국 팽창주의에 대한 필리핀인들의 저항의 총체다.

필리핀-미국 전쟁에서 활발하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필리핀군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미국 정부는 민간기구인 셔먼 위원회(Schurman Commission: 첫 번째 필리핀 위원회), 미 육군 소장들(헨리 W. 로튼, 웨슬리 메리트, 엘웰 S. 오티스, 아서 맥아더, J. 프랭클린 벨) 미 육군 준장들(토마스 M. 앤더슨, 마커스 P. 밀러, 테오도르 선, 프레드릭 퓨스톤, 로이드 휘튼, 제임스 F. 스미스) 그리고 다른 미국 군인들(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전 미육군의 존 J. 피싱 대위와 더글러스 맥아더 중위, 아시아 방면 미 해군의 조지 드웨이 미 함대 사령관), 두 번째 필리핀 위원회 그리고 전투함들(USS 올림피아호, USS 베닝턴호, USS 빅스버그호 등)로 대표된다.

미군은 그들의 공식적 역사들에서 마닐라, 일로일로, 말로로스, 라구나 만, 자포테강, 라나오 호수, 카타바토 호수에서 교전했던 필리핀 “반란” 집단의 사령관들(에밀리오 아퀴날도, 술탄 바얀, 다토 알리)을 인정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그들의 식민 정부에 봉사했던 비-전투원 미국인들은 또한 필리핀의 자결을 위해 싸웠던 이러한 고귀한 필리핀인들(안토니오 루나, 그레고리오 델 필라, 아포리나리오 마비니)을 또한 언급하고 있다.[Frederic H. Sawyer. *The Inhabitants of the Philippines*. London: Sampson Low, Marston and Company Limited, 1900]

Dean Conant Worcester(그는 필리핀인들과 미국인들 사이의 불화는 “상호간의 오해에 의해 발생한 비극”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1899년 1월 4일 오티즈 장군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왔다고 주장했다)는 대략 1899년 9월경 필리핀군 장군 피오 델 필라(Pio del Pilar)를 아퀴날도에게서 “불라칸(Bulacan)에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도적 출신 전과자”라고 불렀다. 그는 또한 아퀴날도의 말로로스 공화국을 “인민 대중이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는 타갈로그 군사 과두정권”이라고 조소했으나, 또한 미구엘 말바르와 같은 필리핀군 장군에 의해 “(완벽하지 않지만) 규율의 형태” 같은 것은 “반란군 병사들 사이에서 일찍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in Batangas and Vicente Lukban in Samar. [The Philippines: Past and Present. NY: The Macmillan Company, 1914]

비 혁명적인 소농들은 어땠는가? 그들 중 일부는 미 식민지 정부의 상공업, 치안 장관이었던 루크 E. 라이트가 조직한 새로운 대항 게릴라 군에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1901년부터 1913년까지 필리핀 군도들의 내무부 장관을 지냈던 Dean Conant Worcester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1901년에 미국 정부는 필리핀에서 지방 경찰을 조직했다. 그것은 필리핀 경찰대(Philippine constabulary)라 불렸다 … 필리핀인들은 거의 6년간 계속되어온 전쟁의 상태에 익숙해져왔다. 한때 번성하던 대농장이 폐허로 변했다. 전쟁과 전염병은 많은 수의 가축들을 죽였고, 남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질병에 감염되고 죽어가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경찰의 조직은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었다.”[The Philippines: Past and Present. NY: The Macmillan Company, 1914, page 381]

미국이 만든 필리핀 경찰대에 있던 소농들은 그들의 옷을 크래그 카빈소총과 (경찰) 유니폼으로 바꾸었고, 복무를 하는 동안 영어로 농경법을 교육 받았다. 그들의 주된 “경찰 임무”는 필리핀인들의 민족 해방을 위한 무장 투쟁의 불씨를 마지막 하나까지 남김없이 비벼 끄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농민들은 일반적인 미국 병사들을 따라 그들의 병역 의무를 수행했으나, 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더 적은 봉급을 받는 반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다. 더욱이 그들은 법과 질서의 이름하에 카피푸난 군대의 전 소령이었던 시메온 올라(Simeon Ola)에 충성했던 이가 촌장(1896년 혁명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부유한 중국계 메스티조)이었던 구이노바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역의 말썽꾼들을 막는 불쾌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올라는 자신이 토지 관리인(bailiff)으로 다스리던 지역(bailiwick)에서 KKK 십자군을 다시 조직하고 군장성에 올랐으나, 결국 정규 미군 부대가 자신의 지역에 가한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 이것이 1902년부터 1903년 사이의 일이다. 오늘날, 필리핀 공화국군은 양키들에게 항복한 마지막 필리핀 장군의 이름을 따 “올라(Ola)”라는 경례구호를 쓴다.

전직 미군에 의해 지휘를 받았던 이 필리핀 경찰대는 이른바 도적 소탕을 위해서만 창설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토착 엘리트와 외세 식민자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집단들이 스페인식 대농장(hacienda)들을 미국 대륙의 국내 시장을 위한 농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코란디아(Bicolandia)의 대지주(cacique)들은 전쟁 시기와 평화 시기, 두 시기 모두에 이득을 얻었다. 전란의 시기에 이 부유한 토지 소유자들은 평화롭게 그들의 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삼을 재배하는 농민(hemp farmers)들로부터 땅을 구매했다. 평화의 시기에는 이러한 대농장주들은 소작농들에게 그들의 땅을 소작을 주어 수익을 얻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필리핀-미국 전쟁에서 주인공에 대적했던 자들은 제국주의자들(월스트리트, 설탕 트러스트, 헨리 로지 Henry Cabot Lodge 상원의원 등), 미국 정부 그리고 필리핀 정부 양쪽의 민간 그리고 군 기관들(해안경비대, 미 농업국, 미 삼림관리국 등) 그리고 미국(전쟁성) 그리고 제국주의자와 협력했던 토착 필리핀인들 그리고 미국과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했던 다른 외세의 앞잡이들(마닐라 대주교)이었다. 자위를 위한 필리핀 전쟁의 주인공은 카피푸난이었고 조연은 하링바양 카타갈루간에 충성을 유지했던 다른 혁명 조직들이었다.

지역민들은 전투에서 필리핀 공화국군과 지방 정부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소농들은 또한 전쟁기구, 위생기구, 교육기구, 공공 행정 기구에 징집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미군은 옥수수 농부들, 토끼 잡이들, 가축치기들, 소치기들 등, 사회각계각층의 인민으로 구성되

었다.

피 많은 소농

1877년의 체코의 리브레토(libretto)[안토닌 드보르작의 오페라<Šelma sedlák(피많은 농민)>을 일컬음]처럼,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항한 필리핀의 공화주의 십자군은 이고로트족(Igorot) 창병, 와라이족 플라한들(Waray plajanes), 타우숙의 후라멘타도들(Tausug juramentados), 마닐라의 프롤레타리아 그리고 카비테 지역의 쿨라크들이 활약한 앙상블 오페라였다. 필리핀 제도 전역에 걸친 이질적인 무리, 단체, 바랑가이(barangay), 마을 사람들과 섬주민들이 전국적 성격을 부여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탈취한 맥심기관총과 다른 서구의 무기들로 무장하고, 이낭바얀(Inangbayan, 모국)의 주권을 향하여 나아갔다.

게릴라 전술의 전본으로서, 미국 군대의 무차초스(muchachos, 어린 하인)는 그들의 주인의 총을 “해방시키기 위해” 연하고용관계(indentureship)를 이용했다.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망고와 다른 농작물들을 행상하던 이러한 소농의 자녀들은, 이후로 성인 전사들에게 무기와 탄약을 운반했을 것이다. 침략자들의 강제에 의해 국내의 협력자가 되어, 선주민 무차모스는 크락요한센 총탄과 스프링필드 총탄은 필리핀 전역으로 밀반출했다.

이러한 전술은 (아기날도의 불명예스러운 생포로 말미암아 재조직된) 새로운 카티푸난(Katipunan)의 마카리오 사카이와, 재생된 타갈로그 공화국의 로마 마날란 장군, 그의 팡가시난주와 삼발레스주 사령관과 리카르테 운동,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선주민들의 저항(타야바스의 루페르토 리오스, 블라칸의 아포 이페, 네그로스 섬의 파파 이시오, 사마르의 디오스-디오스)에게 유용했다.

그들의 소농 지지자들에게 민족주의적 관점과 기독교적 희망을 불어넣은 카리스마적 사령관들은 동학농민혁명과의 비교를 환기시킨다.

고부군의 가난한 농민들은 한반도의 유교적 봉건주의라는 감옥벽에 대항하여 동학의 기반 구조를 내던졌다. 그리고 필리핀 옴브레스(hombres, ‘사람들’)는 스페인 식민주의의 잔재들과 극동에서 미제국주의의 해안교두보에 공세를 가했다. 전봉준이 1892년 11월 삼례집회를 이끌었을 때, 같은 해 안드레스 보니파시오, 라디슬라오 디와 그리고 테오도로 플라타는 카티푸난을 확립했다. 이필제의 난 이후 서양 상인과 선교사의 추방과 부패한 관료지배체제의 타파를 위한 집회는 스페인 인종주의와 유럽의 부당한 폭리 획득, 그리고 스페인의 필리핀 통치체제에 대한 KKK의 반감과 반향을 일으킨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인감 유대 같은 동학의 교리는 카티푸난의 카르틸라(Kartilya, 윤리 규정)에 유사하게 코드화된다. 교조 신원 운동 중에 보편적 원칙을 밝혔다. “다른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회의를 열어 나랏일을 결정한다.” 이것은 운동으로서 KKK의 정확한 원리다.: 자유민에 의한 자유로운 결사, 모든 통치의 수준(이웃, 지방자치체, 주, 지역, 국가)에서 그들의 상구니안(Sanggunian, 평의회)에 대표를 선출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들.

보은에서 강화된 집회는 교조의 명예를 회복하고, 식민 열강을 척결하며, 민씨척족의 과두권력을 해결하고, 국내산 필수품 사용 활성화를 요구했다. 필리핀의 KKK가 스페인의 사형집행자로부터 호세 리살의 구출을 제안하고, 이베리아인의 통치가 붕괴한 이후에도 유럽 식민주의를 거부하며, 일루스트라도스(ilustrados, 교육받은 필리핀 메스티소 또는 혼혈인 엘리트)의 보수주의를 비난하고, 자립적인 구성원과 마을들을 훈련시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백산에서의 농민진영은 앉으면 죽산, 일어서면 백산이라는 아포리즘을 만들어냈다. 리살의 고향에서 카티푸난 참여자들은 파그쿠쿠타(pagkukuta, 고산지대의 동굴 체계를 무기 은닉처, 발사대, 회복 기지로 탈바꿈하는) 전략을 잉태시켰다.

전주화약에서 폐정 개혁안 12조는 모든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려는 지방 행정력을 위한 것이었다. 승리한 카티푸난은 스페인인과 수도원의 토지소유권을 경작자들에게 이양하기 시작했다. 폐정 개혁안 5조와 6조는 천민 계급과 모든 노비들의 자유를 겨냥한 것이었다. KKK운동은 “자유, 평등, 형제애”에 기초하여 설립되었고, 따라서 구성원들은 피부색과 사회적 지위, 탄생 배경과 에스니시티에 관계없이 인간의 삶에 내재한 가치들을 받아들였다. 전주성에서 저항하면서 교조적인 동학교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담유사(龍潭遺詞)>> <검결(劍訣)>을 노래했다. 카티푸난 참여자들은 그들의 수많은 화려한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연했다.

농민들은 동학지배지역에서 집강소를 만들었다. 카티푸난은 영학력있던 지역을 선주민용으로 재명명하면서, 대표단, 부서, 지부, 평의회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확립했다.(카비테 주의 인당(Indang) 마을은 “왈랑 티낙(Walang Tinag, ‘변함없다(steadfast)’라는 뜻)”이라는 KKK이름을 가졌다) 실제로 진보적인 양반이 많았던 서기는 집강소에서 일했다. 원래 카티푸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1895년 12월에 최고평의회는 다음의 관료들, 즉 탐분팅 전당풍[호세 트리니다드, 인텐덴시아(스페인 식민정부의 재무부처)에 판탈레온 토레스, “중국인 협회(fundación de chinos)”에 알레한드로 산티아고, 스페인 시정부에 엔리케 파체코, 우정업무에 살루스티아노 크루스, 그리고 스페인 세관에 시프리아노 판체코가 서기라는 것은 명확히 밝혔다.[Minutes of the KKK Supreme Council 15, 1895]

동도 의병은 사대부계급과 그들의 향촌관료제에 적의를 품은 동몽(童蒙)과 포사(砲士)의 도움을 받았다. KKK의 경우에는 가르디아 시빌(Guardia Civil, 스페인의 경찰지구대)과 카사도레스(스페인 민병), 그리고 필리핀 스페인 식민정부에서 스페인 자체의 의회제도에 반하여 신정국가의 형태로서 다수의 지부를 설치했던 가톨릭 수도승들이 비난을 받았다. 재지 사족 유학자들을 향한 10대 노비 소년들과 범 사냥꾼의 증오는, 타갈로그어로 스페인 가톨릭 수도승-행정관들에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tao(평민)”와 구분되면서 필리핀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군주들에 대한 K.K.K.A.N.B.(Most Elevated and Esteemed Society of the Sons of the People, 가장 고상하고 존경받는 인민의 자녀들의 협회)의 정당한 분개와 나란히 했다.

남접은 특히 1차봉기(황토현, 황룡촌)때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2차봉기(웅치, 우금치, 태인 전투)에선 좌절되었다. 아기날도가 있으나 없으나, 필리핀 공화주의자들은 승리를 거머쥐었다.(산마테오, 파예, 카투빅, 마카함부스, 푸랑 루파, 마비탁, 그리로 1901년 바랑기가 습격) 위대한 봉기지도자인 김개남과 전봉준은 그들과 밀접했던 백성들에게 배신당했다. 그리고 마카리오 사카이(타갈로그 공화국 대통령, 1902-1905)는 미국총독 헨리 C. 아이드와 도미나도르 고메스 박사에 의해 배신당했다.

교활한 자들의 복수

동학에 의해 계몽된 1894년 농민봉기는 “한국근대사에서 단일하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표상하며,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탄생을 상징한다.[Kristen Bell, “Cheondogyo and

the Donghak Revolution: The (un)Making of a Religion," *Korea Journal* Vol. 44, No.2, Summer, 2004 pp.123-148] 따라서 이는 보니파시오와 KKK에게도 마찬가지다. "감정을 가득 담은 의식에서, 투사들은 스페인에 대한 충성심을 끝내버렸음을 상징하기 위해 그들의 거주증명서를 찢어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필리핀 독립 만세!'라고 외쳤다. 이 사건은 필리핀 역사에서 '발린타와의 외침(The Cry of Balintawak)'이라고 기록되었고, 필리핀 혁명의 출발신호로 여겨진다. 오늘날, 기념비는 이 지역에서 필리핀 농민들이 마테테의 필리핀 변형인 '볼로'를 흔들어냈었음을 보여주었음을 기념한다." [Harry Sichrovsky, "The Cry of Balintawak," Chapter 15 of *Ferdinand Blumentritt: An Austrian Life for the Philippines*, 1983/87, Austiran-Philippine WebSite]

정체한 과도적 유교봉건체계에 의해 억압당한 한국 농민들은 근대성과 시민성에 대한 요구를 환기시킬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청일전쟁이라는 거인들의 대결의 방아쇠를 당겼다.

비록 이 전쟁에서 전투원들이 청조 중국과 메이지 일본임에도, 러시아 역시 이점을 찾으려 할 것이었고, 대만은 일본화(Nipponized)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만주는 분쟁의 뼈대가 될 것이었다. 유럽과 나머지 세계에게 있어 청일전쟁은 일본 서구화의 범위를 입증했다. [H.G.Wells, *A Short History of the World*, New York: The Macmillan&Company, 1922]

한국에 있어 갑오전쟁은 한국의 지위를 중국의 조공국에서 일본의 식민지화로 바꾸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근대 제국주의열강으로서 일본의 등장은 서태평양에서의 앵글로색슨 제국주의 추진자로서의 미국의 지배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 사이의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었다.

한국처럼 필리핀은 근대성의 목구멍 속으로 밀어 넣어졌다. 필리핀인들은 또한 미국인들과의 애증관계를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미국의 이상은 실제 미국의 정책들에 의해 부서졌다.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은 미서전쟁 '이후로' 정복의 대상이 되었다. 쿠바는 북미 팽창주의의 본래의 목표물이었고, 필리핀은 호세 리살의 "동양의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국주의자들이 재발견했을 때에 스페인의 카리브해 식민지(푸에르토리코)만큼이나 큰 경품이 되었다. "농업이 필리핀의 가장 주된 직업이라 할지라도, 단지 아홉 중 하나의 지표면만이 경작되고 있다. 이 흙은 비옥하며, 산악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경작지역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섬들은 일본의 인구(42,000,000명)와 동등한 인구를 먹여살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생산물은 쌀, 옥수수, 삼, 설탕, 담배, 코코넛과 카카오다. 커피와 면화는 이전에 매우 많은 양을 재배했었다..."

"카카오는 남쪽 섬들에서 재배하며, 가장 좋은 품질의 커피는 민다나오에서 나온다. 생산량은 150톤에 이르며, 이 모든 것이 초콜렛으로 가공되고 필리핀에서 소비된다. 사탕수수는 비사야스에서 재배된다. 사탕수수 작물은 1894년에 약 235,000톤의 원당을 생산했고, 십분지일 정도 필리핀에서 소비되며, 나머지 11,000,000달러 가격의 210,000톤은 대부분 중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로 수출된다. 삼은 루손 남부, 민도로, 비사야스 그리고 민다나오에서 산출된다. 거의 대부분 짐작에 실려 수출된다. 1894년에 그 양은 96,000톤에 이르며, 가치는 12,000,000달러이다."

"담배는 섬 전역에 걸쳐 재배되고 있으나, 가장 질 좋고 많이 생산되는 곳은 루손이다." [Murat Halstead, *The Story of the Philippines and Our New Possessions, Including The Ladrone, hawaii, Cuba and Puerto Rico*, Our Possessions Publishing

Co., 1898, p.60]

원자재의 공급지이자 미국의 수출시장으로서 필리핀의 잠재력은 담배 트러스트와 다른 카르텔에게 뚜렷했다. 사실, 필리핀 합병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미국 상원의원 역시 거래제한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기업결합체의 조절을 모색했고, 자서전에 1장을 할애했다. “이 나라에서 축적이라는 이름의 무덤의 악마가 거대한 부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거나, 하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전권을 쥔 거대기업이 거대한 자산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다.—흔히들 이를 트러스트라고 부른다.”[George Hoar, ChapterXXXVI, *Autobiography of Seventy Years*, New York: Scribner's Sons, 1903]

정의의 귀환

미국과 일본이 극동에서 식민지를 놓고 벌였던 큰 판돈이 걸린 게임은 단순히 일찍이 반과두정 십자군에 가담했던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최시영, 손병희 등의 군사적 기록만을 더했을 뿐이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였다.

(1)(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했던 대장장이 출신의) 루페르토 리오스(Ruperto Rios)는 독립의 “마법 상자”를 열기를 꿈꾸었던 거대한 추종자들을 이끌었다.

(2)(미국이 교묘히 사주했던 1899년 전쟁에서 필리핀군의 준장에 올랐던)펠리페 살바도르(Felipe Salvador)는 그의 통치 지역인 불라칸과 루손 중심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을 때, 신성한 교회(Santa Iglesia) 운동을 조직했다.

(3)(필리핀 혁명군의 대령이었던) 디오니시아 마그부에라스(Dionisio Magbuelas)는 스페인과 이후 미국인들 심지어 그들의 동료였던 비사야인들(동료들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더 혈안이 되어있었던)과 맞서 싸웠던 바베이란들의 수장인 교황 이시오(Papa Isio)가 되었다. 필리핀 중앙의 네그로스섬 서안에서 로 수행되었던 마그부에라스(Magbuelas)의 활동은 외세와 지역의 과두 독재정을 상대로 대농장의 설탕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4)세부의 카피푸난들은 그들의 섬을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미국 침략자들로부터 지키고자 했다. 1521년 마젤란을 필두로 한 정복의 물결들을 격퇴했던 다투 라푸-라푸(Datu Lapu-Lapu)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농민들은 필리핀 공화국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주춧돌들이었다. 이들은 유일한 진정한 신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고향에 대한 충성을 동일시했던 지방의 시민 대중들이었다. [Renato Constantino, *The Philippines: A Past Revisited (From the Spanish Colonization to the Second World War)*, Quezon City: FNS, 1974, pp. 264-280] 이후 농민들은 인민들의 반일 전쟁(2차 대전 중의 필리핀), 냉전(후크단 봉기: Huk Rebellion), 반 군법 투쟁(1972-1986) 그리고 진정한 농지개혁 운동(genuine agrarian reform: EDSA People Power)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References

- (1) Agence France Press, "Communist rebels raid two Philippine plantations in one day," Yahoo News, 24 August 2014
- (2) Asian Farmers Visit the Philippines: A Chronicle of the Philippine Leg of the Asian Farmers Exchange Program, 17-26 July 2000
- (3) "Assassination of Antonio Luna," 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 Today In History,
<http://tumblr.malacanang.gov.ph/post/52205636551/today-in-history-in-1899-general-antonio-luna>
- (4) Lydia Bayoneta, "Philippine-American War of 1899: The brutal slaughter ignored in U.S. textbooks," Workers World, 18 February 1999, www.workers.org
- (5) James H. Blount. The American Occupation of the Philippines, 1898-1912. New York: The Knickerbocker Press, 1912
- (6) Wilfred Scawen Blunt: Britain's Imperial Destiny, 1896-1899. From: W. S. Blunt, My Diaries: 1888-1914, 2 Vols., (New York: Alfred A. Knopf, 1921). Internet Modern History Sourcebook. Fordham University
- (7) T. R. Brereton. Review of Linn, Brian McAllister, The Philippine War, 1899-1902. HWar,H-Net Reviews. September, 2000
- (8) Major Thomas S. Bundt, Ph.D., "An Unconventional War: The Philippine Insurrection, 1899," Military Review, May-June 2004, pp. 9-10
- (9) Ramon L. Clarete,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Will It Immiserize the Filipino Farmer?"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Vol. 24, Nos. 1-2 (2009)
- (10) James R. Craig, Maj, USA (B.S.,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 West Point, NY, 1993 M.P.A.,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2003). "A Federal Volunteer Regiment In The Philippine Insurrection: The History Of The 32Nd Infantry (United States Volunteers), 1899 To 1901." A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Military Art And Science General Studies. Fort Leavenworth, Kansas, 2006
- (11) Department Of Agrarian Reform,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FAQs on: Agrarian History, Series of 2013
- (12) Friedrich Engels, The Peasant War in Germany, 1850
- (13) Loren Goldner, "General Perspectives on the Capitalist Development State and Class Struggle in East Asia," Sozial.Geschichte online 23 (2009) 1, S. 75-104 (<http://www.stiftung-sozialgeschichte.de>)
- (14) Elizabeth Fair Holm. "The Philippine-American War (1899-1902): Compassion or Conquest?" A Project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School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iberal Studies. December 2013

(15) William James, "The Philippine Tangle," Boston Evening Transcript, March 1, 1899

(16) F. Sionil Jose, "Rosales and Pangasinan: Roots - why they matter," The Philippine Star, March 17, 2014

(17) Joel S. Kahn, "Peasant Ideologies in the Third World,"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4 (1985), pp. 49-75

(18) Kim Chi-ha, "A Declaration of Conscience,"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Vol. 9, No. 2, April-June 1977, pp. 8-15

(19) Eunsoo Kim, "Minjung Theology in Korea: A Critique from a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Japan Christian Review 64, 1998, pp. 64-65

(20) Masataka Kimura, "The Federation of Free Farmers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the Philippine Peasant Movement," Southeast Asian Studies, Vol. 44, No. 1,

June 2006

(21) V. I. Lenin, "The Proletariat and the Peasantry," Novaya Zhizn, No. 11, November 12, 1905

(22) Roderick T. Long, "Anarchocide In South Korea," History News Network, May 25, 2008

(23) "Making Sense of the Korean Crisis: Interview With Gavan McCormack," Kasarinlan: Philippin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2003 18(1-2):112-132

(24) Ricardo C. Morales (Colonel, Philippine Army, B.S., Philippine Military Academy, 1977). "Perpetual War: The Philippine Insurgencie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Security Studies (Security Building In Post-Conflict Post - Conflict Environments) from the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December 2003

(25) North Korea: A Country Study. Federal Research Division, Library of Congress. Edited by Robert L. Worden. 5th ed. 2008

(26) Philippine Republic Day,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http://www.gov.ph/republic-day/>

(27) Pulajanes in Masbate, National Historical Commission of the Philippines, <http://nhcp.gov.ph/men-in-red/>

(28) Sang Jin Ahn. The Religious Synthesis of Choe Je-U as a Nineteenth Century Theological Paradigm for Korean Minjung Theology.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heology. Emmanuel College, Toronto School of Theology, Toronto. March 1997

(29) George Percival Scriven: An American in Bohol, The Philippines, 1899-1901. An On-line Archival Collection: Special Collections Library, Duke University.

<http://scriptorium.lib.duke.edu/scriven/>

(30) Isagani R. Serrano, Vice-President, Philippine Rural Reconstruction

Movement, "Theory and Practice of Rural Reconstruction in the Philippines," A paper presented to the PRRM-sponsored "Forum on Rural Reconstruction: Philosophy from the Indian and Philippine Perspectives," August 2, 1989, PCED,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31) Stephen R. Shalom, "'America's Next Top Model: The Philippines and the U.S. Empire,'" Paper presented at a symposium on "Empire and Resistance in United States-Philippines Relations," UCLA, Los Angeles, December 2, 2006, in honor of Daniel Boone Schirmer

(32) Chan-sup Song, "The Development of the Chinju Peasants' Rebellion of 1862,"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3, December 2002, pp. 123-125

(33) Speech of Vice President Jejomar C. Binay during the celebration of Filipino-American Friendship Day and testimonial dinner for US Ambassador Harry K. Thomas Jr., Hotel Intercontinental, Makati, 09 July 2013

(34) Eduardo C. Tadem, "Marxism, the Peasantry and Agrarian Revolution in the Philippines," *Extrait du Europe Solidaire Sans Frontieres*, <http://www.europesolidaire.org/spip.php?article16121>

(35) The Tonghak Religion And Uprising: Ch'oe Cheu On Learning Truth And Twelve Reforms Proclaimed By The Tonghak Overseer's Office. Primary Source Document with Questions. From *Sources of Korean Tradition*, edited by Yong-ho Ch'oe, Peter H. Lee, and Wm. Theodore de Bary, Vol. 2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232-234, 256-266. Asia for Educators Columbia University, <http://afe.easia.columbia.edu>

(36) The rice business,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Corporate Document Repository

(37) "Theodore Roosevelt," An Address Delivered by Henry Cabot Lodge Before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09 February 1913

(38) Yoo Ba-da, "Jeon Bong-jun at the Center of Change in East Asia in 1894,"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News*

(39) Young Ick Lew, "The Conservative Character of the 1894 Tonghak Peasant Uprising: A Reappraisal with Emphasis on Chon Pong-jun's Background and Motivation,"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7, 1990, pp. 149-180

(40) Young Agrarian Reform Advocates — as a peasant strategy, Peasant Movement of the Philippines (KMP), 1 August 1998

19세기 후반(1859-1875) 프랑스의 침략에 대항한 베트남 남부 농민 저항 운동의 특징들

전 띠 뚜 르엡 (베트남 국립대-HCM)

1. 서론

인류 발전의 단계에서 근대사는 봉건 시기에 잇닿은 다음 성장 단계로 여겨지는 동시에 상품 경제와 부르주아 사회의 정치 제도들을 대응물로서 확립하는 자본주의의 탄생과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견지에서, 근대사의 시기는 연속되는 삼세기인 15, 16, 17세기에 유럽 국가들에서 시작되어 뿌리내리고 모양을 갖추었으며, 다음 18, 19세기에 맹렬히 성장하였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성취들을 바탕으로 봉건적 생산양식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생산력을 끌어 올렸다.

따라서 근대에 들어서 자본주의는 부르주아적 자유의 기치 아래 있는 인간 사회 발전의 중심적 조류가 되었고, 산업화 추세 속에서 생산력의 팽창은 시장 수요의 점증으로 이어졌다. 이 점증하는 수요는 서양의 국가들이 그들의 관심을 동양 지역으로 돌리도록 유도했다. 동양사의 더딘 조류가 이 침략의 물결에 직면했을 때, 그 역사는 과거에 그랬던 것과는 달리 더 이상 자력적이지 않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의 동양과 서양의 충돌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지역 간의 정상적인 문화적 교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하고 문명화되고 탐욕스러운 서양이 유구하되 정태적이고 퇴행적인 동양에 대해 실행한 위협, 침략, 약탈 그리고 지배였다. 이 충격은 베트남과 남한을 비롯한 동양 민족들에게 개혁의 압력을 가했는데, 그 개혁은 민족의 독립 수호를 확고히 하려는 소망을 품고 근대적 조류에 합류하고, 새로운 적과 견주어 위상과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리하여 지체 없이 인류의 일반적 추세 속에서 발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압력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생겨나서 점차 긴급하게 되었는데, 이때 식민주의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도처를 침략하고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봉건 국가들에서는 지배계급의 부패에 의해 초래된 사회적 위기들이 농민과 봉건 영주 사이의 갈등을 일련의 폭동으로 터져 나오게 하는 긴박한 수준까지 몰아갔다. 이 심각한 상황은 아시아의 봉건 국가들이 저조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취약성으로 인한 불안정성에 시달리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의 여명의 시기에 거개가 농민이었던 한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민은 외침에 대항한 싸움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또한 거대한 변환을 겪었다. 침략에 맞서 황제의 군대와 손잡는 것으로부터 농민 저항 운동은 모국을 구하려는 봉기의 동기를 얻었다. 이 동기 부여는 황실 군대의 저항력이 무력함에서 실패로 또 굴복으로 바뀔 때에 지배적 역할을 획득해나갔다. 그런 다음 침략에 대항한 농민 저항 운동은, 자신이 민족 방위의 임무에서 유일한 추진력임을 실제로 확인하면서, 지배적인 역할을 맡아나갔다.

이러한 연유로, 아시아 민족의 근대사에서의 농민 저항 운동과 그 역할에 관한 연구는 긴급하고 중차대하다. 프랑스군에 대항했던 베트남-동남아시아 민족들 가운데 침략에 맞서서

가장 강력한 싸움을 이어나갔던 민족—의 농민 반란 연구의 견지에서, 근대를 관통하는 아시아의 농민 운동의 그림에 다채로운 색상의 자국 하나를 더하는 것이 소망이다.

1858년 9월 2일 프랑스-스페인 동맹이 베트남 침략전의 첫 충성을 올렸다.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 군대에 대항하는 베트남 농민 저항 운동이 불타올랐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강렬하게 퍼져나갔다. 이 운동은 1858년에서 1887년에 걸친 식민 침략에 대항한 전쟁 내내 지속되었고, 식민적 강화조약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나서 베트남에서 착취의 식민 시대가 개시될 때가 되어서야 단지 일시적으로 진정되었다.

이 발표문의 작업을 내에서, 프랑스 침략군에 맞선 농민운동의 일부분을 선택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일부는 바로 1859-1875년 시기 베트남 남부에서의 대(對)프랑스 농민 저항운동이다.

① 프랑스-스페인의 베트남 침략을 위한 다낭(Danang, 베트남의 중앙)에서의 발포가 유관하기는 하지만, 침략에 맞서 민족적 독립을 수호하려는 싸움은 대체로 베트남 남부(1858-1875년)에서 일어났다. 그렇기에 남부의 농민은 강력한 낯선 서구의 침략자들에 저항한 베트남의 선구적 농민 가운데 하나였다. 프랑스 대한 남부 농민의 용감한 저항과 베트남 농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영웅적 자질로서 그들의 슬기로운 창의성과 지성, 헌신을 보여주었다.

② 남부 지역은 17세기 이후에 탐사되어 베트남에 통합된 새로운 영토이다. 이 새 영토에서 농민들이 행한 불굴의 영웅적인 전투는 민족 독립 방위의 곤경 앞에서 베트남의 단결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봉건 영주들이 이 역사의 거대한 변혁기에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 그러했다.

이 발표문은 위의 농민 운동의 발전을 소개하는 대신 이 나라의 상실에 대한 지배 봉건 계급의 책임뿐만 아니라 19세기 말 베트남 민족 독립의 상실로 귀결된 난점들과 비극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고자 하기에 농민 운동의 특징에 대한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2. 1859-1875년 시기 남-베트남 농민의 반-프랑스 운동의 주요 특징들

2.1 남부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 동안 (1859-1875년) 지속되었던 농민 운동은 시작부터 맹렬하게 터져 나왔고, 남부 지역 도처로 퍼져나갔다.¹⁾

1859년 2월 17일, 식민 침략군이 지아 딘(Gia Dinh) 시(市)를 점령했고 남부로 쳐들어가기 시작했다. 지아 딘 시가 점령당하자마자, 당장에 흑 몽(지아 딘)의 5,800명의 농민이 쩐 티엔 쩐(Tran Thien Chinh)의 지도부 하에 집결하였으며, 레 후이(Le Huy)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사이공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다. 이후 운동은 동부 3개 주에서 서부 3개 주로 이어진 프랑스군의 침략의 발자국을 따라 남부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몇백 명을 헤아렸던 것에서부터 몇천 명의 규모에 이르는 수십의 남-베트남 반-프랑스 농민 봉기가 당대의 역사에서 일어났다. 그 봉기들 가운데 몇몇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볼 수 있다.

1) 이 시기 남 베트남은 두 지역으로 구분되는 6개 주(州)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부 3개 주는 지아 딘(Gia Dinh), 딘 투엩(Dinh Tuong), 비엔 호아(Bien Hoa)였고, 서부 3개 주는 빈 롱(Vihn Long), 안 지앙(An Giang), 하 띠엔(Ha Tien)이었다.

쑹 딘(Truong Dinh) 봉기(1861-1864년)

쑹 딘 봉기는 수천의 봉기참가자를 끌어들였으며, 프랑스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적에게 큰 피해를 줬고, 남부 6개 주 전역에서 적을 타격하여 승리를 거뒀다. 1862년에 내려진 황실의 군대 해산 칙령에 반대하여, 남부의 농민들과 더불어 반-프랑스 저항할 수 있었던 봉기 지도자 쑹 딘은 불굴의 애국심의 본을 보였다.

응우옌 쑹 쥘(Nguyen Trung Truc) 폭동(1861-1868)

응우옌 쑹 쥘은 젊은 어부로서, 대담하고 영민하게 기본적인 무기들을 사용하여 1861년 12월 10일 프랑스의 포함 희망(Esperance)호를 불태움으로써 전투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는 반-프랑스 봉기 운동에서 베트남 농민이 잘 무장된 적을 격퇴할 힘이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원정군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을 망연자실케 했다.

동 탑 무오이(Dong Thap Muoi)의 티엔 호 드엉(Thien Ho Duong) 폭동 (1862-1866)

동 탑 무오이는 침수되는 거대한 메콩 강 삼각주이다. 봉기참가자들은 이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유연하고도 대담하게 게릴라전을 수행하여 침략군에게 무수한 피해를 입혔으며 동 탑 무오이 인근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규모의 반프랑스 봉기들과의 제휴를 이끌어냈다.

봉기들은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일어났고 프랑스의 침략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이는 외국의 침략에 직면했던 베트남 농민들이 보여준 강한 저항 정신의 명백한 증거를 나타낸다.

2.2 남-베트남 농민의 반-프랑스 저항운동은 침략자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저항으로 베트남 농민의 슬기와 창조성 그리고 용기를 입증했지만, 봉건적 왕실의 배반은 저항을 실패로 몰아넣었다.

1859-1875년 남-베트남 농민 저항은 두 국면으로 나뉜다. 1862년 평화 조약 이전과 그 이후.

국면1(1859-1862년): 2년간의 포위 끝에 1861년 2월 26일 치 호와 대군사기지(*Đại đồn Chí Hòa*)에서-남베트남 왕실이 벌인 최대 규모의 반-프랑스 도전을 표상하는 역사적 장소. 2만 명의 봉기참가자들과 더불어 기지를 견고히 구축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쏟았으나, 5,000명의 프랑스군에 맞선 치 호와 전투는 삼시간에 패배로 끝났다. 응우옌 왕과 여타의 지배자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서구의 군사 기술과 무기의 견지에서 이점을 누리고 있던 새로운 우세한 침략자에게 반격을 가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한층 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²⁾

그런데 남-베트남 농민의 반-프랑스 운동이 왕실의 군대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침략자들은 치 호와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봉기참가자들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원정대의 강점들은 봉건적 방어시설을 상대로 한 전

2) 여타의 서구 식민주의 국가와 비교해보더라도, 프랑스는 여전히 더 위협적인 상대였다. 18세기 말 이래로 영국과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지속적인 분규에 휩쓸려 있었는데, 마침내 프랑스가 대륙의 패권을 쥐게 되었다. 나폴레옹 1세 휘하의 그 유명한 프랑스군은 나폴레옹 3세의 통치 하에서 한결 더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주(駐)알제리 프랑스 특수부대는 유럽 제일의 엘리트 부대로 인정되었다. 프랑스 병영은 많은 나라들의 장교-양성의 모델이 되었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무기 에 대한 기술혁신을 이뤘다. 활강포는 더 정확하게 사격을 가할 수 있는 강선포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Angels, 1976 Military collection, volume VI, People's Military publishers, p.51.*

투에서는 더 강화되었던 반면, 게릴군에 상대했을 때는 그 약점이 더욱 약해졌다.

봉기참가자들은 각기 다른 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게릴라 전술로 싸웠다. 그들은 전원지대를 장악했다. 그들은 어느 군사기지를 타격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집결했다. 철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격할 때에도 그들은 강과 숲, 수풀, 호수, 웅덩이와 같은 자연장애물의 이점을 살렸다. 그들은 이 장애물을 통해 가만히 다가가서 일제 사격을 가했고, 나타났다가는 다가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가만히 사라졌다. 그리고는 또다시 싸움을 벌이면서, 끊임없이 적을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피로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여, 마침내는 적의 무릎을 꿇렸다.³⁾

1859년에서 1862년에 이르는 시기에 남부의 전장에서, 왕실군이 패주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완전히 원정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다. 남부의 애국적 농민부대는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하며 게릴라전을 수행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의 생활 조건에서 축적된 이점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낯설고 강력한 적과의 비대칭적 전투에서 지배력을 되찾았고, 또한 그들을 수동적 위치로 밀어 넣었다.

이 막다른 지경에 이르러, 침략자들은 절망적이게도 땅과 물, 인민 모두와 싸움에 휘말려 들었다. 따라서 그들은 한 공동체와 대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내침에 대항하는 전 전통과 기후, 강, 운하, 진흙, 모기, 거머리 등 여타의 수천의 장애요소와 대결해야 했다. 따라서 1859년에서 1862년까지, 프랑스는 항상 재빨리 성루를 장악하고, 응우옌 왕조의 정규군을 손쉽게 패퇴시켰었음에도, 응우옌 왕조와의 휴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승리를 거머쥔 다음, 프랑스 원정부대는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갑작스레 무력함과 처량함을 느꼈고 겁 없는 애국적인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고립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프랑스 전투함 ‘희망’ 호가 난 따오 강에서 응우옌 쥘 쥘 봉기참가자에 의해 소실된 이유를 한결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프랑스의 사기를 크게 흔들 어놓았다. 이는 바로 적들의 약점들이 가장 약한 지점에 있을 때에, 적들의 의지 위에 나 있는 지점들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우옌 왕조가 인민의 전쟁을 개시하고, 때에 맞추어 유연하고 현명한 외교를 펼칠 정도로 대답했다라면, 이 나라는 소수의 잔존 침략군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현실이 되지 않았다. 봉건적 응우옌 왕조는 침략에 대한 항전에서 오직 그 인민을 신뢰하지 않고, 1862년 평화 조약에 서명하여 강제로 농민들로 하여금 대 프랑스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게(군대 해산) 했고, 동부의 3개 주를 프랑스에 나눠주었으며, 게다가 프랑스의 전비까지 배상했다.

1862년 평화조약은 농민 봉기에 괴멸적인 타격을 가했다. 왕실의 군대 해산 명령과 모병 금지 명령은, 봉기참가자들을 왕실에 대항하는 반역적인 부류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들을 불법적인 위치에 처하게 했다. 유교 윤리학의 충(忠) 개념은 사유와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그것은 프랑스에 맞서 무기를 들고 일어났던 자들의 마음속에 이데올로기적 투쟁과 고뇌를 불러일으켰다. 봉기참가자들의 정신 안에서 일어났던 혼란이 저항의 힘을 약화시키고, 무력의 분산을 야기했음이 분명하다.

1862년 평화 조약은 확고한 지리적 기반을 침략자들에게 동부 3개 주에 마련하게 해주었다. 1862년 조약 이후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농민의 저항운동을 탄압하는 무장 침략에 열을

3) Prudhome, Souvenir de L' Expedition de Cochinchine, Paris, 1864, p.216

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부 3개 주에서 처음으로 지배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다.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제도가 3개 주에 뿌리내렸고 신속하게 남부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1862년 평화조약 이후로 접어들면서, 남부의 반-프랑스 세력은 적의 군함과 대포에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제도에 대처해야 했다. 군비에서 우세한 침략군과 대결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반-프랑스 세력의 대열에 선 수많은 민중의 실패에 대한 공포와 도피, 주저함에 직면해야 했다.

1862년 평화조약 이후의 상황은 프랑스에 약점을 극복할 기회를 주었고 힘의 균형은 점차 프랑스 쪽에 유리하게 넘어갔다. 침략자들은 점진적으로 지형을 익혀나갔다. 프랑스로부터 특혜를 얻은 하수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침략자들은 1862년 이후에 반-프랑스 봉기참가자들을 더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세에서 1862년 이후에 프랑스를 상대로 거둔 농민 운동의 부분적 승리는 전쟁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 없었고 또한 남쪽으로부터 진행되는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막을 수 없었다.

이처럼, 1862년 이후에는, 수천의 농민들이 군세에 침략자들에게 맞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하게는 남부 농민은, 일반적으로는 베트남의 반-프랑스 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함 응이(Ham Nghi)와 톤 닷 쓰엣(Ton That Thuyet) 왕의 저항이 일기까지 계속되었다.

견결한 투쟁에서 나타난 깐 뷔웅 운동의 활기 넘치는 정신은 식민주의하에서의 노예의 사슬과 족쇄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민중의 “과도의 범상찮은 철썩임”, 확고함, 불굴의 용감성을 보여주었으나,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 역사적 비극은 19세기 말, 역사에서 더는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게 된 응이엔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애국적인 베트남 농민들이 싸우는 길에 병목 지역을 만들었다.

이것을 철저히 이해하려면, 16-18세기의 베트남이 혼란과 갈등을 동반했던 선진적 사회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6-17세기, 풍속의 문란과 부패 그리고 봉건 세력의 권력 투쟁이 이 나라를 파괴적인 내전으로 밀어 넣었다. 그렇지만, 응이엔 봉건 영주 집단의 권력을 향한 강력한 동기가 남쪽으로의 영토 확장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거대한 성장의 잠재력을 지닌 역동적인 남부를 형성시켰다. 18세기에 발발했던 가장 큰 규모의 농민 봉기는 무기를 든 형제들(Brothers in arms)인데, 즉 나라를 남부를 북부 나누고 있던 2개의 봉건 정부를 뒤엎었던 타이 손(Tay Son) 농민봉기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굳은 기반을 다졌었으나,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갔다.

통일의 위업은 응우옌 안(Nguyen Anh)의 봉건주의의 손에 넘어갔다. 19세기로의 전환기 무렵, 응우옌 안은 통일 베트남—이전의 왕조가 보유한 적 없었던 최대의 영토—의 패권을 손에 넣었다.

이 모순적 사실은 서구의 식민적 침략의 문턱에 다다른 베트남을 역설적 발전으로 이끌었다.

한편으로는, 대영토를 획득한 통일 베트남이 통일 몇십 년간의 분열 끝에 발전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맞이한 듯했다. 그렇지만 안정성이 불안정과 혼란을 대체하였다. 무질서를 대신하여 교조적인 문화가 생겨났고, 이는 하나의 정연하게 잘 규율화된 사회를 낳았다. 안정성과 일관성이 국제관계와 해외 무역의 사안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창출한 것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라를 둘로 나누고 있던 두 왕조 가운데 하나로 부터 재건된 응우옌 왕조는 타이 손 농민운동에 의해 거부당했었다. 이 통치자는 구시대를 근대로 변혁시키는 데 필요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 나라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잡을 적격자가 아니었다. 민족의 독립이 위협에 처했을 때, 응우옌 왕조는 농민의 저항운동에 기대를 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응우옌 왕조는 항복으로부터 민족 독립 수호운동에 대한 배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3. 결론

19세기 후반 남부 농민의 반-프랑스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베트남 영토와 통일을 확고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원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남쪽 지역은 가장 최근에 베트남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에 모습을 드러냈다. 봉건집단이 권력을 두고 내전을 벌이며 민족적 통일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고 있었던 17세기에야 남부는 형태를 갖췄다. 하지만 민족의 활력이 부패하고 문란하고 반동적이던 봉건 왕조들과 더불어 시들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가장 최근에 배태되긴 했지만, 남부는 베트남 인민에 의해 수행된 남쪽을 향한 팽창과정의 가장 장대한 “소산”이었다. 남부는 신속하게 그 중심으로서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역동적인 경제 지역이 되었다.

남부의 놀라운 발전은 공통의 국가 규모의 시장을 확립해야 할 필요를 촉발했다. 이 상황을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일된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된 정치 체계 확립의 필요가 생겨났으며, 이는 국가의 통일을 꾀하던 18세기의 경향을 불러일으켰다.

응우옌 봉건 집단은 19세기에는 비록 승자였으며 통일 베트남을 거머쥐었으나 민족 통일의 경향을 대표하지는 못했다. 하여, 그들은 구래의 것에서 근대로 변혁해야 하는 시기에 성공적인 국가 경영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지 못했고, 서구의 식민 침략에 직면하여 성공적인 민족 독립 수호의 고난 또한 극복하지 못했다.

19세기 말 프랑스 침략에 대항한 남부 농민의 싸움은 비록 실패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새로이 개간된 영토에서의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의 경험과 창조성에 기반을 둔 무장 활동과 손을 맞잡은 문화적 힘을 드러낸다. 이 사례에서, 전통문화의 힘은 남부 농민의 애국주의와 민족 해방을 위한 싸움의 실제적 과정에 의해 고취되고 표상되었다.

왕실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식민주의에 대항한 무장 운동을 통해 남부 지역 농민은 공식적으로 또 공적으로 퇴행적인 봉건적 제도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땅의 주인들의 문화적인 강력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식의 성숙도를 나타냈다. 그것은 새 땅이 깨끗했다가 땀에 흠뻑 젖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쳐들어온 침략자들에 맞서서 떨쳐 일어나서 이후의 단계들에서 분열되지 않은 전 영토를 통일하겠다는 의지력의 확고한 기반을 창출한 용감한 농민의 피로 그 땅이 젖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1. Chronicle of Greater Vietnam, from Gia Long to Khai Dinh (大南實錄, Đại Nam Thực lục Chính biên, 1973, Volumes 29, 30, 31). Publisher of Social Sciences, Ha Noi.
2. FOM Indochine Archives FOM A30 (12) Carton 11.
3. Institute of Historical Research, 2003, The History of Vietnam from 1850 to 1896. Publisher of Social Sciences, Ha Noi.
4. L.P. De La Barrière, 1864, Historie de L' Expédition de Cochinchine en 1861, Paris.
5. Multiple authors, 1992, Socio-cultural Issues under the Nguyen Dynasties. Publisher of Social Sciences, Ha Noi.